

老年과 家族福祉에 관한 研究

韓 昌 榮*

目 次	
I. 序 論	2. 家族週기로 본 老人
II. 家族의 變遷	V. 老人慾求로 본 家族
1. 家族의 形成	1. 經濟的 安定慾求
2. 家族의 構造	2. 身體的 健康慾求
3. 家族의 機能	3. 情緒的 安定慾求
4. 老人家口	4. 自己實現慾求
III.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	VI. 老人과 住居形態
1. 立體的 構造面	1. 未來老人家族의 構造的 模型
2. 平面的 關係面	2. 박거리 模型
IV. 家族週기로 본 老人	VII. 結 論
1. 家族週기와 그 變遷	

I. 序 論

J. J. Rousseau(1712-78)에 따르면, 人間의 家族이란, 모든 사회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自然스럽게 형성된 唯一한 것이라고 한다(The human family, according to Rousseau, is "the most ancient of all societies and the only one that is natural.")¹⁾.

루소의 말처럼, 自然스럽게 형성되어진 家族은 時·空의 變遷과 차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형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 家族危機論까지 云論되어지고 있

* 法政大學 行政學科 教授

1) Mortimer J. Adler, edit., *The Great Ideas: A Syntopicon of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I.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66. p.350.

거니와, S. L. Dixon은 危機에 處한 家族을 機能的으로 衰弱해진 家族體系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²⁾ 家族危機論은 나아가서 家族解體論으로 論旨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努力은 家族危機를 진단하고 그것을 克服하려는 데 焦點을 맞추어왔던 것이다. 오히려, 人間의 努力은 進一步하여 家族의 福祉問題를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의 복지문제를 概念化시킨 것이, 바로 “家族福祉”인 것이다.

“家族福祉”에 관하여, 全準雨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의 원조」라고³⁾ 말하고 있거니와, 「社會福祉事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⁴⁾

가족복지(家族福祉)(family service, family social welfare) 가족복지는 사회복지의 일 분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 노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원 개개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의 복지가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 대해서 문제 해결과 원조를 위한 사회적 조직활동이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는 그 대상이 되는 특정인을 원조하는 데 비하여 가족복지는 가족을 전체로서 한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위와 같은 가족복지의 定義는 「2000年代를 向한 韓國社會福祉總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⁵⁾

아무튼, 개인적 차원이나 家族的 次元에서 老人福祉問題를 다룰 때, 老人福祉에 관하여 偏向的으로 接近하여갈 것 같으면, 家族的 福祉問題가 度外視되는 수가 있게 된다. 본시 老人도 家族構成員인 이상, 그 老人이 속해 있는 家族을 看過해서, 老人의 복지문제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家族的 次元이라는 視角에서는, 老人福祉와 家族福祉는 密接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으며 兩者는 函數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論文은 위와 같은 점에 着眼하여, 老人의 老齡化(Aging) 과정과 家族福祉의 關係를 淸查하는 데 그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主眼點에 投影照準되어지는 것으로는, 家族的 變遷,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 家族週기로 본 老人, 老人慾求로 본 家族, 그리고 老人과 住居形態 등이 있다. 이들 문제들을 차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2) 金基兌, “家族危機介入에 關한 研究”, 「法學研究」第23卷第1號(通卷 第30號), 釜山大學校法政大學 法學研究所, 1981, p.303.

3) 全準雨, 「家族福祉論」, 大邱: 弘益出版社, 1990(再版), p.47.

4)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編, 「社會福祉事典」, 서울: 經進社, 1991(重版), p.40.

5) 障履奉仕會福祉會館, 「2000年代를 向한 韓國社會福祉總覽」, 서울: 社會단체 장애자고용봉사회, 1990, p.1077.

II. 家族의 變遷

무릇, 家族의 變遷過程에 관한 具體的이고 專門的인 見解은, 이른바 家族學의 領域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專門적인 研究보다는, 家族과 老齡化(Aging)라는 視角에서 家族의 變遷過程上의 傾向性만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먼저 家族制度에 變動을 일으킨 要因을 찾아볼 때, 金斗憲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列擧하고 있다.⁶⁾

첫째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특히 조상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다.

셋째로는, 여성의 해방이다.

넷째로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종래의 가족제도가 점차로 무너지게 되었다.

다섯째로는, 법률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위에 列擧되어진 要因外에 필자는 여섯째로, 老人人口의 增加와 高齡化를 추가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家族制度에 變動을 일으키는 要因들과 그들의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家族의 變遷에 관한 傾向性을 家族의 形成, 構造, 機能 그리고 老人家口라는 視角에서 차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家族의 形成

家族의 形成(family formation)은 대체로 大家族制가 먼저 형성되었으며, 현대에는 이른바 核家族(nuclear family)이 強勢를 보여주고 있다.

大家族制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韓國 家族制度에 관하여, 그 長短點을 崔在錫은 각각, <表 I>과 <表 II>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⁷⁾

6) 金斗憲, 「現代의 家族」, 서울: 乙酉文化社, 1975, pp.78-79.

7)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p.262-263.

〈表Ⅰ〉韓國 家族制度의 長點

表 現	內 容	出 處
아름다운 풍속	祖上崇拜	도덕 6-1, 文敎部, 1959.
淳風美俗	가. 祖上崇拜 나. 家長特別優待	공동생활 1, 황산덕·고승재·김경수, 1960.
美 風	가. 형님 누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는 형님 누님을 따르고 받드는 것 나. 父母를 一生동안 모시고 지낸다.	새로운 道義 中 3, 林漢水·金俊燮·崔秉七, 1956.
좋은 風俗	孝 道	사회생활 4-2, 文敎部, 1959.
美 風	父母에 對한 孝道, 男便에 對한 婦道	문화의 향상, 이의철·신기석·조동필, 1957.
좋은 點	어른 孝愛, 尊敬, 家內의 尊重	공동생활 1, 박중홍, 1956.
美 德	父母의 孝道	공동생활 1, 이의철·신기석·조동필, 1959.
아름다운 點	孝의 尊重	공동생활 1, 박일경·권혁소·이종항, 1959.
美 風	父母, 祖父母恭敬, 祖上崇拜, 親戚相扶	공동생활 1, 유진오, 1961.
美 風	父母恭敬, 男便섬기다, 어른 尊敬	문화의 창조, 한태연, 1956.
美 風	孝道, 兄弟友愛, 어른恭敬, 親族和睦, 相扶相助	공동생활 1, 김중한, 1960.
美風良俗	孝道崇尙, 兄弟姉妹, 友愛相助, 夫婦不離婚, 親戚和睦	고등도덕 1, 文敎部, 1959.

〈表Ⅱ〉韓國 家族制度의 短點

內 容	出 處
男女平等思想의 不充分 人格尊重思想의 稀薄	공동생활 1, 박일경·권혁소·이종항, 1959.
自由와 平等觀念稀薄 妻子의 男便 및 父親에의 隸屬 父母, 親族에의 依賴 派閥心	공동생활 1, 김중한, 1960.

子女의 個人的 自由抑壓 男尊女卑 總母·子婦의 不和 親族에의 依賴心 妾制 冠婚喪祭의 繁雜	고등도덕 1, 文敎部, 1959.
家長에 依한 家族員의 意思無視	공동생활 1, 최문환·한춘섭·김상형, 1958.
年少者의 意思抑壓	문화의 창조, 손명현, 1957.

위의 <表Ⅰ>과 <表Ⅱ>와 같은 長短點을 지니고 있는 傳統的 韓國家族制度는 都市化(urbanization)와 産業化(industrialization)의 물결에 따라서 변천하였으니, 그 변천의 모습은 家族의 分化和 核家族化現象으로 나타났다.

1960年代 초기 5인이상 가족은 전체 家族중 약 64퍼센트를 차지했으나 이는 최근에 39퍼센트로 감소한 대신 2인이하의 家族에서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 世代別, 家族構成에서도 3세대이상 家族은 1960年代 初期 약 29퍼센트를 차지했으나 이는 최근에 16퍼센트로 저하되었고, 1~2세대 家族의 증가를 보이면서 平均 家族員數의 감소는 현저하게 되었다. 이러한 家族規模는 地域間 産業構造나 文化的 差異가 農村에서 多世代의 大家族性向을 잔유케 한 반면 都市에서는 核家族의 小規模 家族에서 보편성을 보이게 되었다. 즉, 1960年代이후 급속한 都市據點의 産業化에서 農村人口는 都市에 流出되면서 農村家族의 分化現象은 뚜렷해지고 이에 편승한 出産調節과 核家族化는 夫婦當 平均子女數의 縮小와 夫婦中心의 家族形成을 현저케 하였다.⁸⁾

요컨대, 여기서는 核家族이 지니는 特性이나 機能에 관하여 云論하기 보다는 차라리, 核家族과 傳統的 韓國家族을 對比시켜볼 때, 核家族은 대체로 傳統的 韓國家族이 지니고 있는 長點을 具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短點은 補完하는 向方으로 발전하는 傾向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傳統的 韓國家族이 核家族으로 변천하는 tempo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변천과정에서 야기되어지는 波及效果는 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波及效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中正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見解가 있는데, 그런 견해중에는 金斗憲의 견해가 있다. 그는 韓國家族制度의 近代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다.⁹⁾

① 효도의 정신을 숭상하되, 부모의 자애와 자녀의 존대가 조화를 얻어, 개성과 인권의 발전을 기할 것.

8) 孔世權 外 4人,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서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77.

9) 金斗憲, 前掲書, pp.90-91.

- ② 조상의 숭배는 혈통의 가계만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에서 조상의 偉業을 숭상할 것.
- ③ 남녀를 물론하고 一夫一妻의 정신에서 정조의 관념을 존중할 것.
- ④ 자식이 성혼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별거의 조치를 취해 자립하도록 보호 육성할 것.
- ⑤ 자녀의 결혼은 자유연애를 존중하되 부모의 善導가 있어야 할 것.
- ⑥ 혼상계례를 전통과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현대식으로 간소화할 것.
- ⑦ 同姓不婚이란 것을 止揚하여 근친이상은 결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
- ⑧ 家名(family name)을 새로 제정하여 아내는 남편의 姓을 따를 것.
- ⑨ 현행의 친족상속법이란 명칭을 가족법으로 개정할 것.
- ⑩ 여권을 존중하되 과잉의 폐가 없도록 할 것.
- ⑪ 첩제의 구습을 일소할 것.
- ⑫ 이혼의 자유는 존중하되 합부로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
- ⑬ 同族觀念에 사로잡혀 정실에 빠짐이 없어야 할 것.
- ⑭ 風水의 미신을 타파할 것.
- ⑮ 가족제도에 관한 서양풍조와 전통을 아울러 비판하여 그 장점을 취할 것.

위에 列擧한 견해를 살펴보면, 金斗憲은, 傳統의 韓國家族과 核家族이 각각, 가지고 있는 長點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각각의 長點들만을 취한다고 해서 家族의 理想型을 創出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長點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短點도 補完하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즉, 取長補短의 슬기가 있어야 한다.

2. 家族의 構造

家族의 構造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家族의 크기, 世代別, 그리고 縱橫構造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家族의 크기는 家口員數의 문제로 前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소급하여 고찰하여 볼 때, 高麗의 家族이 平均家族員 6.7인이었는데 비해 朝鮮의 家族은 3.6인이었다.¹⁰⁾ 그리고 朝鮮의 家族은 小數人化와 直系化를 그 特色으로 한다.¹¹⁾ 그런데, 그 후 平均家族員數가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55年の 平均家族員數는, <表Ⅲ>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5.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10)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서울: 一志社, 1983(四刷), p.218.

11) 上揭書, p.219.

12)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2, p.104.

〈表Ⅲ〉 普通家口の 平均家口員

年 度	1955	1960	1966	1970	1975
平均家口員	5.45 (5.40)	5.56	5.49	5.24	5.04
平均家族員	5.15	?	?	?	4.71

備考：1955년의 팔호 속에 것은 本人의 센서스 原票 1,000分의 1 抽出寫本에 의거한 平均家口員이다.

〈表Ⅲ〉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平均家口員數가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90년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¹³⁾, 실제로 가구당 가구원수는 80년 4.6명에서 85년 4.2명, 90년 3.8명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즉, 平均家口員數의 小數人化現象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世代別의 變化를 살펴보면, 1世代家口와 2世代家口의 비율의 증가는 완만한 데 대하여 3世代家口의 減少率은 좀 격심하다고 하겠다.¹⁴⁾ 즉, 多世代家族構造로부터 單純世代 家族構造로 變遷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家族의 縱橫構造라는 視角에서 고찰하면, 傳統의 韓國家族는 縱的 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父系的, 垂直的 家族構造를 가지고 있었다.¹⁵⁾ 그런데, 그런 家族이 小 家族化, 核家族化, 그리고 民主化過程에서, 縱的 構造로부터 橫的 構造로 變移되어 가는 傾 向性이 있는 것이다. 옛날의 三從之道나 女必從夫라는 생각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男女平 等思想에 根底를 둔 모랄이 家族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家族에는 橫的, 水平的 構 造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3. 家族의 機能

家族의 機能을 分析上, ① 性 및 愛情의 機能, ② 生殖의 機能, ③ 養育의 機能, ④ 經濟的 機能, ⑤ 教育의 機能, ⑥ 保護의 機能, ⑦ 休息 및 娛樂의 機能, 그리고 宗教的 機能으로 나누고 있거니와¹⁶⁾, 특히 都市家族은 家族의 機能이 弱화하는 傾向이 있다.¹⁷⁾ 예컨대, 家族 外의 二次集團이 家族의 娛樂 및 情緒의 機能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든가, 또는 家族員間에 心理的 一致를 보지 못한다. 요컨대, 都市家族은 이웃과의 關係가 弱하고 이것이 相對的으로

13) 조선일보, 1991.4.13. <19> : 90년 인구-주택센서스 풀이.

14)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p.111.

15)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 一志社, 1981(五刷), pp.276-277.

16)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pp.170-183.

17) 李光奎(1981), 前掲書, p.327.

家族의 獨立을 추구하여 都市家族에는 地域共同體의 一員으로 共有하는 情緒的 安定的 求心力이 弱하다.¹⁸⁾

都市家族의 이런 현상을, 필자는 都市家族의 私事化(privatization) 現象이라고 불러 본다. 예컨대, 도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A家族과 B家族이 咫尺之地에 살면서도 서로 모른다. 서로가 不關焉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都市家族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農村家族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마는, 農村家族은 나뉠대로 큰 고민이 있다. 그것은 農村家族 構成員中, 젊은 구성원들이 離農集都의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農村家族에는 늙은 구성원이 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農村老人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農村家族에서 젊은 구성원들이 빠져 나가는 현상을, 필자는 家族의 空洞化現象이라고 본다.

그리고 家族의 機能을 그 志向性(orientation)에 따라서 고찰할 수 있다. 즉, 家族의 機能을 老人(the aged)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 있다. 이런 모델은 家父長制의 大家族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夫婦中心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은 核家族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夫婦中心을 極端化시킨 것으로 DINK(Double Income, No Kids)라는 모델도 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의 기능을 子女에 중점을 두는 모델을 想定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子女中心家族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核家族化, 民主化의 물결에 따라서, 家族機能의 志向性은 老人志向的(the aged-oriented) 모델로 부터, 夫婦志向的(couple-oriented) 모델로 변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다.

4. 老人家口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農村家族의 空洞化現象으로 농촌가족에는 늙은 구성원의 役割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都市家族 구성원중의 老人들은 分家를 選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老人家口形態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表Ⅳ>와 같다.¹⁹⁾

18) 上掲書, p.328.

19) 이가옥 외 3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60.

〈表Ⅳ〉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추이

가 구 형 태	1985	1988
핵 가족 형 가 구	35.2	33.0
직 계 형 가 구	52.0	48.8
독 신 가 구	8.8	12.7
기 타 가 구	4.0	5.5
계	100.0	100.0

주 : 1985년 조사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중간세대 결여가구'를 노인단독가구로 분류하고 있어, 1988년 조사의 비율을 1985년 조사의 개념에 의거하여 재조정된 수치임.

자료 :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25.

이가옥 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p.47.

〈表Ⅳ〉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5년에 비해 핵가족형 가구와 직계형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독신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노년기의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⁰⁾

한편, 林春植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노년인구의 16.6%가 단독세대라는 수치를 보여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단독세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조사대상자의 40%가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분가했다는 것이다.²¹⁾

요컨대, 老人家口는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Ⅲ.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을 천착하는데 있어서, 立體的 構造面과 平面的 關係面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立體的 構造面

20) 上掲書,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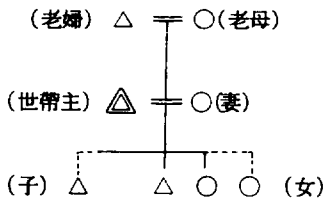
21) 조선일보, 1991.5.8. <13>: 老人 17% "따로 나와 산다".

家族關係上, 老人의 位相을 立體的 構造面에서 살펴볼 때, 正常的인 構造와 非正常的인 構造로 나누어 볼 수 있거니와, 다음에 차례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正常的인 構造

家族關係上, 老人의 正常的인 構造를 圖式化하여 보면, <表V>와 같다.

<表V> 正常的인 家族構造



<表V>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正常的인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구조는, 老父, 老母, 世帶主, 妻, 그리고 子女들로 구성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老父나 老母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며 손자들이 있는 모델인 것이다. 그리고 老父와 老母가 共生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百年偕老를 謳歌할 수 있는 모델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모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非正常的인 모델들이 야기되거니와, 이런 모델을,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다.

나. 非正常的인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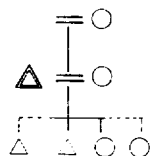
非正常的인 構造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正常的인 構造를 準據基準(frame of reference)으로 삼아서 살펴 봐야 한다.

<表V>에 의하여 非正常인 構造가 야기될 可能性은 여러가지 모델로 나타나게 된다.

△ 事例, I : 老父 他界의 경우

事例, I 을 圖式化하면, <表VI>과 같다.

<表VI> 老父 他界의 경우



〈表Ⅶ〉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중에서 老父가 他界하는 모델을 想定할 수 있거니와, 이런 모델의 發生可能性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1990년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 平均壽命에 있어서, 남자는 67.4세이고 여자는 75.4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각각 75세 및 7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²²⁾ 그러므로 1990년의 경우, 平均壽命上, 여자는 남자보다 8년을 더 길게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事例 I의 蓋然性은 크며 실제로 事例 I과 같은 가족구조는 흔하다.

老父가 他界함으로써 유발되어지는 衝擊은 가족구성원에게 크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老母가 받는 충격은 더욱더 크다. 왜냐하면, 配偶者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老母의 孤獨感은 增幅될 것이며, 그런 孤獨感은 世帶主(자식)와 妻(며느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姑婦間의 구조와 관계는 미묘한 樣相을 띠게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事例 I이 발생하는 시기를 간과할 수 없다. 事例 I이 60대에 생기는 경우를 비롯해서, 70代, 80代, 90代 등에 발생하는 경우를 想定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의 평균수명이 67세(1990년 기준)이므로, 事例 I의 발생시기는 6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高齡化社會가 되어가면서, 事例 I의 모델이 70代나 80代에도 발생하게 된다. 事例 I이 高齡에 발생하면 할수록 그만큼, 충격의 強度는 弱화되어 갈 것이다.

한편, 事例 I의 경우에도 老人再婚의 문제를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再婚率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高齡者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남자는 再婚, 여자는 初婚인 경우가 남자 초혼, 여자 재혼인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 ²³⁾ 따라서 事例 I에서는 老母가 再婚하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적다.

요컨대, 事例 I에서는 女性老人의 문제가 云論되어진다. 女性老人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今世紀는 老人의 世紀일 뿐만 아니라, 또한 女性老人의 世紀라 할 수 있다(Therefore, this is not only a century of old age, but also a century of older women.). ²⁴⁾ 그래서인지, 韓國女性開發院은 「女性研究」(제8권 제3호, 1990/가을, pp.5-153.)에서 女性老人의 문제를 〈特輯〉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特記할만한 일이다. ²⁵⁾ 필자가 알기로는, 女性老人의 문제가 研究誌에 特輯으로 다뤄진 예는, 韓國老年學上, 처음 있는 일인줄 안다. 이처럼, 韓國에 있어서도 女性老人의 문제는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2) 조선일보, 1991.4.13. 〈19〉: 90년 인구-주택센서스 풀이.

23) 朴在侃, 「老人問題와 對策」, 서울: 二友出版社, 1979, p.133.

24) 韓昌榮, 「美國老年學」,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85.

25) 韓國女性開發院, 「女性研究」제8권 제3호, 1990/가을, pp.5-153; 특집: 한국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참조.

△ 事例 II : 老母 他界의 경우

事例 II는 老母가 他界하는 경우이다. 事例 II의 圖式化도 事例 I과 같이 할 수 있다(다음에 소개되는 事例의 圖式化도 같음). 老父의 입장에서 보면, 配偶者인 妻가 他界하는 케이스랄 수 있다. 제아무리 惡妻라 하더라도 孝子孝婦보다 낫다고 하거니와, 老父가 初老에 喪妻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事例 I의 경우와는 달라서, 老父만이 生存하게 되면, “돌봐주기”라는 문제가 유발된다. 왜냐하면 그 “돌봐주기”는 老母가 役割 遂行을 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역할수행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老父의 再婚問題가 등장하게 된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 老人의 再婚문제에 관하여 장애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老人再婚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비록 표면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老人 need의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²⁶⁾

男性老人이 再婚할 경우, 그는 가급적이면 젊은 女性和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男性老人(老父)이 소속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결혼 대상이 되는 女性和 젊으면 젊을수록, 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는 그만큼 더 複雜性을 띠게 된다. 따라서, 男性老人이 너무나 젊은 女性和 결혼하는 것은 家族福祉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요컨대, 事例 II는 事例 I과 같이 多發性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事例 II의 경우, 男性老人(老父)이 再婚하지 아니하고 홀로 지낼 때, 이른 바, 獨身老人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 事例 III : 世帶主 他界의 경우

事例 III은 世帶主가 他界하는 경우이다. 老父와 老母의 입장에서 代替世代主가 없다면, 사정은 심각하다. 世帶主가 他界하면, 그 家族은 缺損家族(broken family)이 된다. 世帶主가 他界한 경우에도 老父母와의 구조에서, 老父와 老母가 具存하고 있는 경우, 老父만 生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老母만 生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老父와 老母가 具存하고 있는 경우, 며느리(妻)에게 주는 부담이 많게 된다. 老母만이 生存할 때도 역시 같다. 그런데, 老父만이 生存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앞서 말한 것 처럼, 老母가 老父에게 해주던 “돌봐주기”라는 일도 며느리가 도맡게 된다. 이 경우가 가장 困難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世帶主가 他界하게 되어, 備蓄한 財産이나 年金受惠가 없는 이상, 당장 家計收支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重荷性을 실감하게 된다. 그 며느리가 重荷性을

26) 金聖順, 「老人福祉論」, 서울: 二友出版社, 1981, p.125.

견디지 못하고 家出해 버리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다. 이럴 경우, 後述하게 되는 少年小女家長의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40代 死亡率이 세계 제일이라는 점에서²⁷⁾, 事例Ⅲ의 발생 가능성은 크다.

△ 事例Ⅳ : 妻(며느리) 他界의 경우

事例Ⅳ는 世帶主의 妻(며느리)가 他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世帶主가 他界하여 老父 母에게 타격을 주는 경우와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缺損家族을 치유하기 위하여, 世帶主는 再婚하게 된다. 老父母의 視角에서는 며느리가 交替되어지는 형태랄 수 있다. 그러나, 뿌리 없이 뽑는 것이 情이라서, 老父母는 새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情緒的으로 새롭게 交感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 事例Ⅴ : 世帶主와 妻 모두 他界하는 경우

事例Ⅴ의 경우는 老父母가 있고 子女(老父母의 孫子女)가 있는데 世帶主와 妻가 모두 他界하는 모델이다. 이런 모델을 少年少女家長 형태랄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정말로 비참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老父(할아버지)와 老母(할머니) 모두 具存하는 경우, 할아버지만 生存하는 경우, 그리고 할머니만 生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중에서도, 할아버지만이 生存하는 경우가 손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平面的 關係面

老人이 가정에서 關係되는 局面은 다음 네가지이다. 즉, ① 老夫婦關係(the marital relationship), ② 老人과 子女와의 關係(the relationship of the aged and their children), ③ 老人과 孫子와의 關係(the relationship of the aged and their grandchildren), 그리고 ④ 老人과 兄弟姉妹와 親戚과의 關係(the relationship of the aged and their siblings and other kinfolk)가 있는데, 다음에 각각의 局面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²⁸⁾

가. 老夫婦關係(the marital relationship)

1985년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60세 이상의 결혼관계를 보면 <表Ⅶ>과 같이 남자의 86.6

27) 1991.5.9, 오후 7시-9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高級管理者課程의 特講計劃에 의거, "中期의 健康管理"라는 主題로 洪文和 박사가 특강한 내용에서 강조된 것임.

28) 韓昌榮, 前掲書, p.77.

%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반면에 여자의 35.5%만이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생존율은 낮아지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배우자 생존율이 훨씬 낮아진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배우자 생존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8세정도(1990년 기준) 짧기 때문이다.²⁹⁾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結婚期間의 延長, 結婚生活의 量과 質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그 변화는 平等主義(equalitarianism)의 向方으로 발전하고 있다.³⁰⁾

〈表Ⅶ〉 60세 이상 노인의 결혼관계

(단위 : 천명)

구 분	남 (%)	여 (%)	전체 (%)
유배우자	950 (86.3)	586 (35.5)	1,536 (55.8)
사별	146 (13.2)	1,060 (64.1)	1,206 (43.8)
이혼	4 (0.3)	5 (0.3)	9 (0.3)
미혼	2 (0.2)	2 (0.1)	4 (0.1)
계	(100.0)	(100.0)	2,755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센서스속보」.

노년기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滿足度가 더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결혼생활 만족도가,

- ① 계속 낮아지는 경향,
- ② 처음에는 높다가 낮아져서 다시 높아지는 변화의 U형의 경향과,
- ③ 무변화 또는 높아지는 경향으로, 서로 엇갈리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의 경향 가운데 ②의 U형으로 변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가 훨씬 많다.³¹⁾

그리고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結婚의 質의 變化에 관하여 結婚後期의 幸福感 또는 滿足度에 관하여 對立된 學說이 있다. 즉, 하나는 R.P. Abelson 등이 주장한 認知的一致說(cognitive consistency theory)이며 다른 하나는 I. Rosow가 주장한 生活繼續說(life continuity theory)인 것이다. 이 두가지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²⁾

29) 張仁協·崔聖載, 「老人福祉學」,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211.

30) 韓昌榮, 前掲書, p.79.

31)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212.

32) 韓昌榮, 前掲書, pp.79-80.

1) 認知的 一致說(Cognitive consistency theory)

이 설은 夫婦間的 結婚生活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그들이 相互關係에 投資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結婚生活이 幸福하고 滿足스럽다고 알리는 傾向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이 說은 夫婦가 主觀的으로 認知한다는 데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結婚生活이란 個人의 世界觀을 빚어내는 主觀的 心理狀態와 存在인 同時에 그것은 客觀的으로 관찰되어야 할 實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說은 客觀的 視角에서 批判을 받는 것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2) 生活繼續說(Life continuity theory)

이 說은, 夫婦間的 結婚生活 初期에 이뤄진 適應類型이 後續段階에도 適應類型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結婚生活 初期에 낮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晩期의 結婚生活에서도 똑같이 낮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結婚初期에 높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은 夫婦는 晩期의 結婚生活에서도 역시 높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兒童中心의(child-centered) 結婚生活에서는 대개 夫婦關係는 낮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는데 이런 結婚生活은 兒童이 成長하며 떠나버려, 빈집(empty-nest)이 되고난 다음에도 여전히 夫婦關係는 낮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結婚初期부터 높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지닐려고 努力했던 夫婦는 晩期의 結婚生活에서 높은 幸福感和 滿足도를 갖게 된다고 한다. 이런 夫婦는 빈집과 退職期間을 그들이 어버이가 되기 이전에 경험했던 높은 水準의 滿足스러운 關係를 再樹立하는 機會로 삼는다고 한다.

韓國의 俗談에 “남편복이 있어야 자식복이 있다”는 말은 이 學說과 一脈相通한다 하겠다.

요컨대, 앞서 말한 U형의 경향과 生活繼續說은 一脈相通하는 점이 있는 것 같으며, 필자는 生活繼續說을 택하여 둔다.

실제로, 老夫婦生活이 滿足스럽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일이지만, 老齡期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 그 요인으로는 노년기 이전의 결혼생활, 부부간의 평등성과 역할분담의 융통성, 퇴직으로 인한 역할변화, 퇴직자의 자아상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정도, 배우자의 부부개인의 생활주기상의 전이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³³⁾

위와 같은 요인들을 老夫婦가 슬기롭게 처리하면, 滿足한 老夫婦生活을 營爲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할 때, 老夫婦關係는 葛藤關係를 유발하게 된다. 다음에, 그 葛藤類型을 살펴보기로 한다.

33)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212.

3) 葛藤類型

夫婦關係의 葛藤을, John F. Cuber와 Peggy B. Haroff는 다음과같이 다섯가지로 類型化 시키고 있다.

- (가) 葛藤型(conflict-habituated relationships)
- (나) 無氣力型("devitalized" relationships)
- (다) 消極的 一致型(passive congenial relationships)
- (라) 活力型(vital relationships)
- (마) 完全一致型("total" relationships)

위의 유형중, 活力型과 完全一致型을 제외한 세가지 유형이 夫婦關係의 갈등과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 Cuber 등도 中年夫婦에 많은 유형으로 無氣力型과 消極的 一致型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세가지 갈등유형을 요약하면,

- △ 葛藤型: 緊張·葛藤이 慢性化되어 있는 夫婦關係
- △ 無氣力型: 夫婦關係以外에 公同의 관심을 찾는 유형
- △ 消極的 一致型: 惰性的인 夫婦關係라고 할 수 있다.³⁴⁾

위와 같은 갈등유형은 老夫婦가 高齡化되어갈 수록 弱화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지만, 그러한 갈등유형이 姑婦間의 갈등과 相互作用하게 되면, 그 갈등유형이 乘數作用을 일으켜서 深化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나. 老人과 子女와의 關係(the relationship of the aged and their children)

이미 "家族의 變遷"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傳統的 家族構造는 縱的·垂直的 構造를 지니고 있었으며, 核家族化和 家族의 民主化 過程에서는 家族構造가 橫的·水平的 構造로 志向하는 傾向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과 子女와의 關係 역시 家族構造의 變遷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老人과 子女와의 關係는 多분히 橫的·水平的 關係로 志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즉, 노령기의 자녀와 부모간의 關係는 부모가 주로 자녀로부터 받기만 하는 의존적인 關係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방적인 상호호혜적 關係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령기에 있어서의 부모-자녀 關係를 교환론적 立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⁵⁾

張仁協·崔聖載는 부모자녀關係를 동거/별거의 측면, 상호원조 및 부양의 측면, 關係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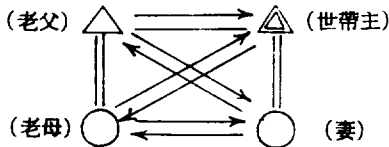
34) 那須宗一 増田光吉, 「講座=日本の老人 3, 老人と家族の社會學」, 東京: 垣内出版, 1975(重版), pp. 267-268.

35)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 221.

질의 측면으로 고찰하고 있거니와³⁶⁾, 여기서는 老父母의 측면에서 본 관계와 자녀(世帶主 및 妻 등)의 측면에서 본 관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老父母와 子女와의 관계는 子女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는 複雜性和 多樣性을 띠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家族構成員의 小數人化와 子女數의 減小 現象에 따라서, 그 關係 역시 單純化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되어가는 현상을 참작하면서, 실제로 老父母를 부양하는 가족의 關係를 單純化시켜, 그 관계를 圖式化시켜 보면, <表Ⅶ>과 같다.

<表Ⅶ> 부모·자녀관계



<表Ⅶ>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관계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老母 ⇄ 妻와의 관계, 즉 姑婦間的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추가하여 고찰한다.

1) 老父母의 측면에서 본 關係

傳統的 韓國家族에서는 世帶主(同居扶養者)로서 長男을 選好했었다. 아직도 우리나라 老人은 그런 選好性을 지니고 있는데, 차츰, 그 선호성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1985)에 의하면,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노인은 73.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촌노인의 80.0%가 장남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중소도시노인(66.4%)이나 대도시노인(60.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은 장남이 부양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30~40%에 이르는 도시노인은 '아들형편따라' 또는 '자녀형편따라'라고 응답하여 부양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Ⅷ>.³⁷⁾

36) 上掲書, pp. 217-226.

37) 이가옥 외 3인, 前掲書, p. 210.

〈表IX〉 노인의 부양의식

부 양 의 식	전 국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장 남	73.4	60.9	66.4	80.0
아 들 형 편 따 라	16.2	22.6	18.7	13.1
자 녀 향 편 따 라	8.3	13.2	11.8	5.5
기 타	2.1	3.3	3.1	1.4

자료 :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192.

〈表IX〉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長男選好性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대신 子女平準化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父母와 世帶主와의 관계는 固定的인 것으로 부터 流動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관계가 固定的인 것일 때는, 좋은 삶든 간에 扶養責任의 確定性, 繼續性, 不可避性 등이 있는데 반하여, 그 관계가 流動인 것일 때는, 扶養責任의 不確定性, 不連續性, 回避性 등이 유발되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老父母와 子女와의 關係를 時·空의 次元에서 살펴보면, 時間的 次元에서는 세대차이(lineage gap)가 있으며 空間的 次元에서는 同居와 別居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老父母와 子女와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2) 子女의 측면에서 본 關係

子女가 老父母에 대한 부양의식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1985)는 동거자녀의 부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동거자녀의 부양의식은 부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 조사에서는 현재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와 결혼한 딸의 부양책임의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장남에 의한 부양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노인의 부양의식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에 의하면, 56.9%가 장남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30.7%가 자녀 순위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 모셔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表X〉에 나타난 가족관계 및 교육수준별 부양자의 의식을 살펴보면, 장남의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딸보다는 그리고 교육수준에 있어서 저학력소지 부양자에게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관계별로 살펴볼 때, 며느리의 58.5%가 장남을 부양자로서 지적한 반면, 딸의 31.0%만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녀순위 관계없이 부양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비율은 딸이 50.0%로 며느리의 29.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에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딸의 표본

〈表 X〉 가족관계, 교육수준에 따른 부양책임의식

구 분	가 족 관 계			교 육 수 준				
	전 체	자 부	기혼딸	무 학	국 중	중 중	고 중	대 중
노 인 스 스 로	2.0	2.0	—	1.3	1.6	1.3	3.6	7.1
장 남	56.9	58.5	31.0	77.6	64.3	46.8	35.1	30.4
자녀순위관계없이	30.7	29.5	50.0	17.2	25.0	39.1	45.8	44.6
부 모 회 망 자녀	9.9	9.6	17.9	3.4	8.8	12.2	14.7	16.1
기 타	0.5	0.5	1.2	0.4	0.3	0.5	0.9	1.8

자료 :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233.

수가 매우 적어서 일반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자녀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겠다. 나아가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남이 모셔야 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자녀순위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 모셔야 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³⁸⁾

즉, 子女와 老父母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轉移性이 엿보이고 있으며, 時·空의 次元에 있어서 야기되는 관계도 前述한 바와 같다.

3) 姑婦間의 關係

주지하는 바와 같이, 姑婦間의 關係처럼, 복잡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관계는 드물 것이다.

이른바 垂直的 家族構造에서는 姑婦間의 關係 역시 上·下關係이었다. 즉,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며느리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方案으로, 李光奎는 두가지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시어머니에 관한 勞動謠를 부르면서, 抑壓된 心情을 解消하고 樓積된 感情을 發散했다는 것이고 그 둘은,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이다.³⁹⁾

上·下關係의 시집살이에 관하여, 제주도에서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말이 있다.

눈감아 3년.

귀막아 3년.

병어리 3년.

위와 같이 며느리는 처신을 해야 시집살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8) 上揭書, pp.210-211.

39) 李光奎(1981), 前揭書, pp.203-204.

그런데, 垂直的 家族構造로부터 水平的 家族構造로 轉移하는 과정에서, 姑婦間的 關係에도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옛날에 누렸던 시어머니의 位相은 弱化되어가는 한편, 며느리는 獨立性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에 姑婦間的 갈등은 深化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갤럽이 1989년 5월 실시한 「姑婦關係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중에서는 姑婦갈등이 심하며 新中年世代일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갈등의 심각정도에 대해서는 42.9%가 「매우 심각하다」, 27.6%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 10명중 7명이 우리사회에서 姑婦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⁴⁰⁾

姑婦갈등을 調律하는 일환책으로, 朴在侃은 「시어머니가 바라는 며느리像」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⁴¹⁾

첫째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공로를 인정해 주고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노후를 보내려는 기대심리를 이해할 것.

둘째 친정식구보다 시집동기들과 친밀하게 지낼 것.

셋째 사치와 낭비를 삼갈 것

넷째 남편과 아이들 식성만 챙기지 말고 시부모의 기호도 고려해 식단을 짤 것.

다섯째 노인의 옷이나 일용품은 선택의 기회를 줄 것.

여섯째 용돈은 평준화해서 지급할 것.

일곱째 응접실 사용권에 아량을 베풀 것.

여덟째 시부모 산소자리마련 등 死後 관리에도 관심을 보일 것.

아홉째 부모재산은 재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것은 부모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고칠 것.

한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갈등의 해결방안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시어머니가 참고 살아야 한다(40.7%), 시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7.3%), 아들 가정을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20.4%), 따로 살아 만나는 기회가 적어야 한다(11.6%)는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⁴²⁾ 이에 대해, 韓南濟는 부모세대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거니와, 姑婦갈등을 해소하는데는 姑婦 共同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姑婦間的 關係는 至近한 것도 바람직스런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至遠한 것도 바람직스런 것이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을 두되 그렇게 멀지 아니한 관계가 所望스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不近不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姑婦의 갈등은 姑婦間的 關係에서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그 갈등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波及效果가 큰 것이다. 따라서, 姑婦의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갈등이

40) 한국일보, 1990. 6. 7. <7>: 新中年世代, 그들의 빛과 그림자(19): 姑婦관계

41) 한국일보, 1991. 6. 7. <7>: 上同.

42) 韓南濟, 「現代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9, pp. 225-226.

유발되지 않도록, 姑婦는 서로 정성을 드려야 할 것이다. 誠者는 天之道요 誠之者는 人之道也라고 했다. 즉, 精誠이란 범주 또는 개념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지만, 그 精誠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家族關係上, 정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관계가 姑婦間的의 관계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에서 姑婦間的의 관계가 원만하면, 다른 가족관계도 순조롭게 되기 때문이다.

다. 老人과 孫子와의 關係(the relation of the aged and their grandchildren)

李允淑은 「祖父母에 대한 兒童의 意識構造」(1986)라는 論文을 통하여서, 同居意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분석하였다(表X I).⁴³⁾

〈表X I〉 同居意識

동거의식	동거준속 성별	조부모와 같이 안산다 B群			조부모와 같이 산다 A群		
		남 (%)	녀 (%)	계 (%)	남 (%)	녀 (%)	계 (%)
1.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							
1) 귀여워해주니까.		85 (39.5)	94 (40.0)	179 (39.8)	133 (46.3)	119 (40.0)	252 (43.3)
2) 용돈을 주니까.		10 (4.7)	15 (6.4)	25 (5.6)	14 (4.9)	15 (5.1)	29 (5.0)
3) 먹을 것을 주니까.		5 (2.3)	5 (2.1)	10 (2.2)	12 (4.2)	16 (5.4)	28 (4.8)
4) 구경들을 때 감싸준다.		38 (17.7)	34 (14.5)	72 (16.0)	72 (25.1)	60 (20.3)	132 (22.7)
5) 기타		8 (3.7)	4 (1.7)	12 (2.7)	2 (0.7)	8 (2.7)	10 (1.7)
2. 조부모와 사는 것이 싫다.							
1) 귀찮아 한다.		2 (0.9)	3 (1.3)	5 (1.1)	6 (2.1)	4 (1.4)	10 (1.7)
2) 용돈을 준 일이 없다.		1 (0.5)	1 (0.4)	2 (0.4)	2 (0.7)	3 (1.0)	5 (0.9)
3) 먹을 것을 준일이 없다.		1 (0.5)	1 (0.4)	2 (0.4)	-	-	-
4) 부모보다 더 야단을 친다.		5 (2.3)	10 (4.3)	15 (3.3)	12 (4.2)	16 (5.4)	28 (4.8)
5) 부모와 잘 싸운다.		7 (3.3)	3 (1.3)	10 (2.2)	6 (2.1)	9 (3.1)	15 (2.6)
6) 기타		2 (0.9)	3 (1.3)	5 (1.1)	1 (0.4)		1 (0.2)
3. 가끔 만나는 것이 좋다.							
		41 (19.1)	45 (19.1)	86 (19.1)	23 (8.0)	30 (10.2)	53 (9.1)
4. 관심없다.							
		8 (3.7)	9 (3.8)	17 (3.8)	3 (1.1)	11 (3.7)	14 (2.4)
무응답		2 (0.9)	8 (3.4)	10 (2.2)	1 (0.4)	4 (1.4)	5 (0.9)
계		215 (100.0)	235 (100.0)	450 (100.0)	287 (100.0)	295 (100.0)	582 (100.0)

43) 李允淑, 「老人問題論文·論說集」, 서울: 교학사, 1990, pp.124-127.

〈表X I〉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祖父母와의 同居에 對한 意識을 보면 A群에서는 「같이 사는 것이 좋다」가 43.3%, B群에서는 39.8% 이고 祖父母와 「같이 사는 것이 싫다」는 境遇는 各各 1.7%, 1.1%로 오히려 同居하고 있는 A群에서 祖父母와의 同居를 B群보다 싫어하고 있다. 그 理由는 「귀찮아 한다」 4.8%, 「父母보다 더 야단을 친다」 2.6%, 「父母와 잘 싸운다」 2.6%의 順이다.

同居를 좋아하는 理由는 「귀여워 해주니까」 A群 43.3%, B群 39.8%로 가장 많고 「꾸중을 들을때 감싸 준다」가 各各 22.7%, 16.0%로 2位이다. 祖父母를 「가끔 만나는 것이 좋다」는 對象者는 A群에서 9.1%, B群에서 19.1%로 오히려 祖父母와 同居하는 群보다 同居하지 않는 群이 自己 立場의 妥當性을 수긍하고 있다.

요컨대, 老父母의 同居意識과 子女의 그것과 孫子の 그것을 對比시켜 볼 때, 同居意識을 等式化시켜 보면, 老父母>子女>孫子라는 等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別居를 加速化시키는 豫告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Neugarten과 Weinstein은 조부모 역할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⁴⁴⁾

- 1) 공식형 : 손자들에게 선물 주고 열중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권위나 책임을 침해하지 않음.
- 2) 재미추구형 : 손자를 여가활동의 원천으로 삼고 손자와 조부모 상호간에 만족을 얻음.
- 3) 대리부모형 : 부모를 대신하여 육아와 교육을 담당함.
- 4) 가족지혜의 저장형 : 가족내의 권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며 전수함.
- 5) 원거리형 : 휴일 또는 가족의 특별한 의식 외에는 별로 접촉을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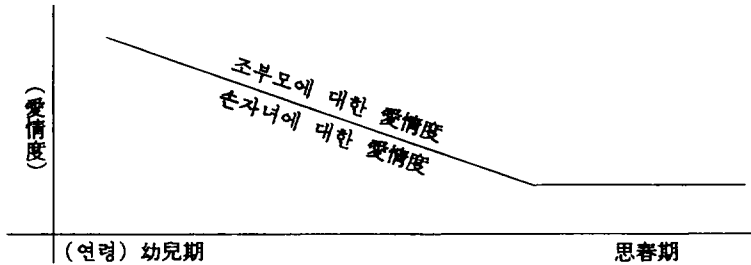
위에서, Neugarten과 Weinstein이 주장한 다섯가지 조부모의 역할유형을 살펴봤거니와 老人家口가 증가하여감에 따라서, 5) 원거리형이 증가하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노인과 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자의 年齡에 따라서 愛情度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조부모들은 사춘기이상이 된 손자보다 어린 손자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⁴⁵⁾ 한편, 손자녀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부모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경향을 圖式化시켜 보면, 〈表X II〉와 같다.

44)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227.

45) D. K. Harris/W. E. Cole, 崔信德 譯, 「老年社會學」, 서울: 經文社, 1985, p.216.

〈表X II〉 조부모와 손자녀의 愛情度



〈表X II〉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손자녀에 대한 愛情度나 조부모에 대한 愛情度는 손자녀가 성장하여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소하는 경향면에서, 두 가지 애정도가 같은 軌跡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이른바 老社會(older society)에서 어린이를 다루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노화사회는 어린이로 하여금 가능하면 빨리 成人을 만들려는 경향과 청년을 敎化하고 抑制하기 위하여 敎育, 法施行과 여론을 동원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것은 마치 「孟子」라는 古典에 나오는 農夫가 성급한 나머지, 실익은 벼이삭을 날마다 잡아당기다 보니, 벼이삭이 뽑아져 버렸다는 寓話와 그 脈絡이 같다고 본다. 요컨대, 요즘, 어린이의 女性化가 云論되고 있지만, 어린이의 成人化 내지 老人化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끝으로, 손자녀들이 조부와 조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따뜻하고 포근한 “할머니”는 중간위치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할아버지”만 가장 먼 위치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여기서, 老後에 할머니의 役割遂行의 連繫性을 규찰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손자녀들이 할머니만 접촉하다보면, 손자녀의 女性化라는 可能性을 排除할 없을 것이다. 손녀의 경우는, 할머니와의 접촉은 자연스런 것이지만, 손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손자의 경우는 할아버지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질 수 있는 가정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라. 老人과 兄弟姊妹와 親戚과의 關係(the relationship of the aged and their siblings and other kinfolk).

46) Mary Jo Bane, *Here To Stay: American Families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6, p.113.

47) 윤진·조석미,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韓國老年學」No. I, 韓國老年學會, 1980, p.83.

老人과 兄弟姊妹와 親戚과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그 親密度가 약한 계 사실이다. 그런 친밀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核家族化, 家族의 私事化, 家族의 空洞化 등을 손꼽을 수 있거니와, 대체적인 경향은, 그 친밀도가 약화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착안하여, 成圭鐸·朴英蘭은 이론 바 社會的 支援網이란 개념으로 연구(1987년,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한 결과에 의하면, “친척 지원망”은 다음과 같다.⁴⁸⁾

【친척지원망】

크기 : 친척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노인은 전체의 약 56%이다. 이들중 57%는 1명의 친척, 26%는 2명, 4%는 3명의 친척으로부터 각각 도움을 받았다.

빈도 : 지원해주는 친척과 한달중 만나는 회수는 2회 이하가 69%, 4회 정도가 16%, 20회 이상이 7%이다. 가족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거리 : 지원해주는 친척이 이웃에 사는 경우가 5%, 같은 구내는 10%, 같은 시내는 50%, 국내·외는 35%의 비율을 각각 차지함으로써 과반수가 같은 시내에 살고 있으나 가족지원망보다는 역시 멀리 떨어져 있다.

기간 : 노인들의 86% 가량이 지원해 주는 친척과 11년 이상 관계를 맺고 있다.

방향 : 노인 자신이 만나러 가는 경우는 약 24%, 상대방이 만나러 오는 경우는 약 32%. 반반이 약 44%로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가 약간 많다. 서로 오가는 비율이 비슷하다.

친밀성 : 지원해주는 친척과 친밀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62.3%, 보통이 30.1%, 친밀하지 않다가 7.1%이다. 친밀한 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친밀성이 덜하다.

지원효과 : 친척의 지원효과가 크다가 전체의 40.3%, 보통이 27.5%, 작다가 42.2%이다. 가족으로부터 노인들이 받는 도움보다는 낮다.

요컨대, 地方化時代가 開幕되었으니, 앞으로 老人地域福祉에 관한 관심이 드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老人地域福祉가 활발하게 전개되어가면, 그에 따라서, 친척지원망도 영향을 받아서, 強化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한다면, 친척지원망은 地方自治 이후에 보다 더 活性化되어질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8) 成圭鐸·朴英蘭, “老人의 社會的 支援網에 관한 研究”, 「社會福祉」제34권 제4호(통권 99호), 1988년 겨울호, p. 33.

IV. 家族週기로 본 老人

앞에서 살펴본,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에 관한 일은 時間的 次元을 捨象하여 고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다루지는 家族週기로 본 노인문제는 時間的 次元에서 窺察하려는 것이다. 즉, 前者에서는 “關係” 그 自體를 超時間的으로 接近한 것이라고 한다면, 後者에 있어서는 “時系線上”의 家族週期에서 老人이 점하는 자리매김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接近을 위해서는, 먼저 家族週기와 그 變遷의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家族週기로 본 老人의 位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家族週기와 그 變遷

남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가족은 확대되며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신들이 자라온 가족을 떠나게 되면 가족은 축소하기 시작하고 노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과정을 가족주기 또는 가족생활주기(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라고 한다.⁴⁹⁾

이러한 가족주기도 歷史性을 지니고 있다. 韓國家族의 週期는 韓國文化의 所産이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直系家族은 韓國의 長子로 이어지는 伸張運動과 次·三男衆子로 이어지는 擴散運動을 겸하는 擴散性 直系家族이었다.⁵⁰⁾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가족형태는 소위 直系家族이 지배적인 패턴(pattern)이며, 점차 核家族의 형태가 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사회의 핵가족은 구미의 핵가족과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 서구의 핵가족은 夫婦中心家族이고 橫적관계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夫婦 중심이라기보다는 父子 중심이고 다분히 縱적 關係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關係구조면에서는 直系家族의 성격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미의 핵가족은 그 주지가 매우 간단하다. 즉 夫婦의 결혼에서 출발하여 한두 명의 자녀를 낳고 막내아이를 독립시킨 후에는 夫婦만의 黃金年齡期를 거쳐서 夫의 사망이나, 妻의 사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주기는 繼起的으로 가계를 이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애매한 점이 없지 않다.⁵¹⁾

49) 金良喜, 「家族關係」, 서울: 修學社, 1989, p. 64.

50) 李光奎(1981), 前掲書, p. 266.

51) 金聖順, 前掲書, pp. 106-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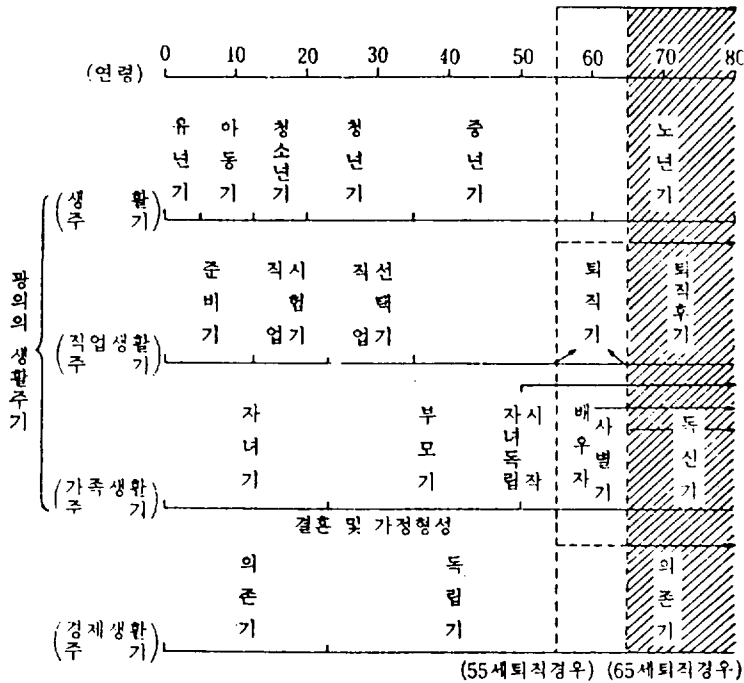
아무튼, 가족생활주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廣義의 생활주기와 狹義의 그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다음에 차례로 살펴 본다.

가. 廣義의 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를 廣義로 보는 見解로는 張仁協·崔聖載의 견해이다. 張仁協·崔聖載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⁵²⁾

한 개인이 생활주기상에서 어느 단계에 위치하느냐는 주로 다음과 같은 要因들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연령구분이다. 둘째는 직업적 경력 또는 職業週期이다. 셋째는 家族生活週期이다. 넷째는 개인의 선택적 결정이다. 다섯째는 경제적인 의존성과 독립성의 經濟生活週期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表XⅢ>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表XⅢ> 연령과 생활주기



자료 : R.C. Atchley,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Belmont, C. A. : Wadsworth, 1980), p.91의 그림을 한국 사정에 맞게 수정한 것임.

나. 狹義의 생활주기

廣義의 생활주기는 多元의 接近方法이라고 한다면, 狹義의 생활주기는 單線의 接近方法이

52)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p.103-104.

랄 수 있다. 즉, 後者에는 단순히 성장발달단계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特色이랄 수 있으며, 이러한 接近方法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주기의 단계별구조를 圖式化시켜보면 <表XIV>와 같다.

<表XIV> 家族週期の 段階別構造(子女 3人 기준)

가정의 구분	어버이 가정		자기의 가정		자기의 가정 자녀의 가정	
가족 원 의 수	5인	2인	3인	4인	5인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이생요인	본인출 생의 의인	본인혼 의인	장 자 출 생 의 의인	막 내 혼 의 인	배 우 자 사 의 의인	본 인 사 외 망 의 인

<表XIV>에서 보면 擴大家族일 경우 4-5가 없어지고 3기인 親子同居期가 사망할 때까지 연장되며 핵가족일 경우에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婚姻을 하지 않고 독신일 때는 2-5기가 없게 되며, 결혼을 하더라도 晚婚일 경우에는 獨身前期가 연장되어 初産으로부터 자녀의 출가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며, 3기가 연장되는 반면 4기가 단축된다.⁵³⁾

아무튼, 가족주기는 時代의 변천에 따라서 변천하고 있어서, 다음에 그 변천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家族週期の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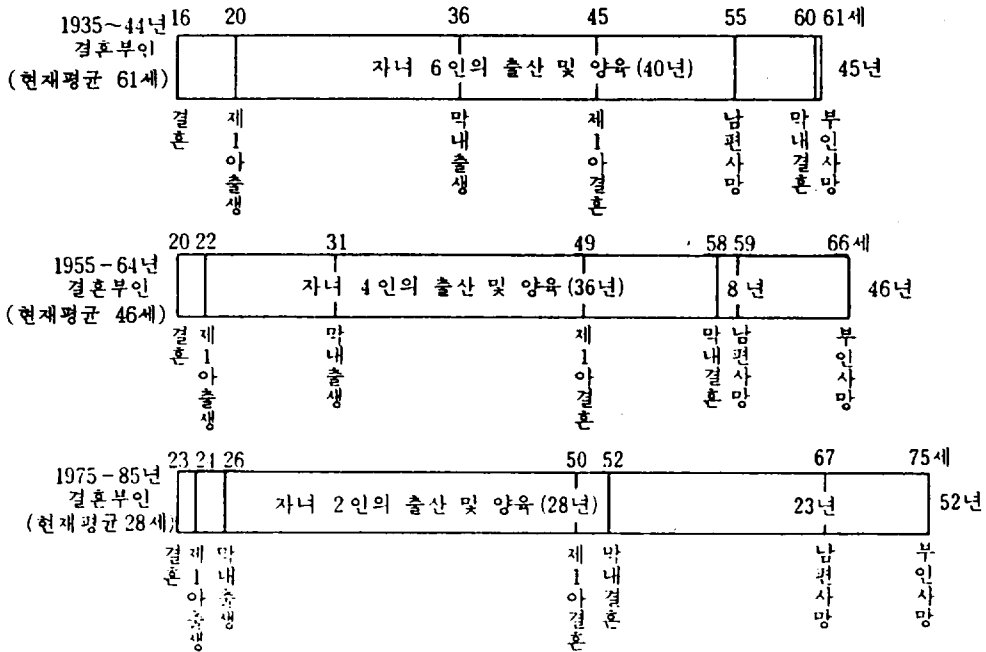
家族週期の 各 段階가 그 간의 社會經濟發展과 出生子女數의 減少 및 平均壽命의 延長 등에 수반되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注目하게 된다. 1935년부터 1985년까지의 結婚婦人을 결혼 코호트(cohort)별로 구분하여 家族週期の 變動을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初婚年齡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平均壽命의 延長效果가 더욱 컸기 때문에 家族週期の 全期間은 1935-44년 결혼코호트의 44.5년에서 40년후의 1975-85년 결혼코호트에서는 51.8년으로 7.3년이 연장되었다.<表X V 참조>.⁵⁴⁾

한편, 狹義의 家族計劃(産兒制限)의 보급에 따라서, 斷産時期는 빨라지고 있다. 즉, 막내 출생이 早期化 되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막내결혼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早期化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요컨대, 家族文化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53) 金聖順, 前掲書, pp.107-108.

54) 孔世權 外 4人, 前掲書, pp.154-155.

〈表 X V〉 家族週期の變動様相



2. 家族週기로 본 老人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家族週期の 변화과정은 老後生活에 重點이 두어지는 向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家族週期の 展望을 알아보고 다음에 老人의 位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家族週期の 展望

〈表 X V〉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家族週期는 여러 가지로 변동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老後生活과 관련된 것만을 전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子女結婚完了以後 男便의 死亡을 거쳐 婦人의 死亡에 이르기까지의 縮小完了 및 解體期는 近年에 尙수록 尙상히 길어지고 있음이 注目된다. 1935-44년 結婚코호트婦人의 경우를 들면 子女結婚이 完了되기 以前(5.8년전)에 男便死亡을 경험하게 되므로 未亡人의 時期동안 子女結婚이 完了됨과 거의 동시에 婦人이 死亡하게 됨으로써 家族週期는 終止符를 찍게 된다. 그러나 最近에 尙수록 死亡水準이 改善되고 出生子女數가 減少됨에 따라 子女結婚完了以後

55) 孔世權 外 4人, 前掲書, p. 156.

夫婦만의 긴 期間과 子女와 男便 모두가 떠나간 未亡人으로서의 時期를 맞게 된다. 1975-85년 결혼코호트婦人의 예를 들면, 약 2005-15년경에 子女結婚이 完了된 이들 夫婦는 以後 약 15년간의 子女없이 지내는 빈둥우리의 時期를 경험하게 되며 남편사망이후 다시 婦人은 7년이라는 기간을 혼자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家族週期の 樣相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의 人口政策에서는 人口의 老齡化와 더불어 子女를 떠나 보낸 후 빈둥우리의 시기를 살게 될 夫婦와 未亡人에 대한 社會福祉的 次元의 對策을 長期的 眼目으로 수립하는데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을 전후하여 55-59세 정도에 이르게 될 夫婦는 이 時期에 子女를 모두 떠나 보낸 후 약 10년간의 빈둥우리 시기를 거친 다음 男便이 死亡하면 婦人은 약 7-8년간 未亡人으로서 혼자 남게 된다. 또한 2010년을 전후하여 약 53-56세 정도에서 子女結婚이 完了된 이들 夫婦는 이때부터 15년간의 빈둥우리 시기를 거쳐, 婦人은 이후 약 7년간의 未亡人 時期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나. 老人의 位相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60歲以上 老人들이 經驗한 家族生活週期는 <表 X VI>과 같다.⁵⁶⁾

<表 X VI> 60歲以上 老人들이 經驗한 家族生活週期

週 期	週期の段階	男 便	婦 人	段階的期間
家族形成期	結婚時 年齡	21.05	16.65	> 3.89
	첫 子女출産時 年齡	24.94	20.54	
家族擴張期	막내子女출産時 年齡	41.20	36.80	> 16.26
完全擴張期	첫 子女結婚時 年齡	49.70	45.30	> 8.50
家族收縮期	막내子女結婚時 年齡	62.45	58.05	> 12.75
完全收縮期	配偶者의 死亡時 年齡	53.85	49.45	> -8.6
家族解體期	生存配偶者의 死亡時 年齡	-	-	-

<表 X VI>에 의하면 막내子女結婚時 年齡보다 配偶者의 死亡時 年齡이 낮다. 다시 말하면, 配偶者가 먼저 死亡하고 다음에 막내子女를 결혼시켜야 한다는 가족주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表 X VI>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가고 있지만 현재는 위와 같은 경험이 없지 않다.

家族週期上 老人의 位相을 살펴보기 위하여 男性老人, 女性老人,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

56) 林鍾權 外 4人, 「韓國老人의 生活實態」, 서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p. 104.

The Sandwich Generation)로 나누어 고찰한다.

1) 男性老人

男性老人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未婚子女의 문제이다. 老人들의 未婚同居子女數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表XVII>과 같다.⁵⁷⁾

<表XVII> 老人들의 未婚同居子女數

(단위: %)

年 齡	(全體老人)	未 婚 子 女 數			
		計	1	2	3 +
60 ~ 64	(735)	67.9	39.7	17.6	10.6
65 ~ 69	(466)	35.2	27.3	5.2	2.7
70 ~ 74	(328)	10.4	8.3	1.5	0.6
75 ~ 79	(236)	2.1	2.1	—	—
80 +	(156)	1.3	1.3	—	—
全 體	(1,921)*	36.6	23.6	8.2	4.8

• 既婚子女나 非同居 및 未婚老人(1,139명) 除外

<表XVII>에 의하면, 未婚子女를 가진 노인의 率은 68%나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表XVII>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未婚子女를 두고 退職期를 맞게 되면 老人의 처지는 더욱 곤란하게 된다.

金聖順은 家族週期에 준거하여 男性 老年期の 변동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① 50대 초반에 첫 孫을 보고, ② 60대 초반에 생업에서 완전 引退하며, ③ 60대 초반에 막내아들을 결혼시키고, ④ 60대 후반에서 配偶者보다 먼저 사망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②와 ③의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經濟的 能力的 상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저하시키며, 가족 내에서 의존적인 지위로 전환되기 쉽게 한다. 즉, 벌이도 없는 데 막둥이를 장가 보내 자니 딱한 노릇이고, 큰 아들 内外의 눈치와 처분만 기다리게 된다.⁵⁸⁾ 한편, 큰 아들의 입장에서 대체로 40대이므로 家計負擔上 그 부담이 제일 많이 드는 時期랄 수 있다. 첫째로 40대에는 자녀교육부담이 있으며, 둘째로 첫 자녀 결혼준비 부담이 있으며 셋째로 40대의 老後對策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하여 老父母의 子女結婚이라는 부담은, 40대 큰아들의 부담을 더욱 加重케 한다. 이와같은 부담의 加重性을 “負擔의 重荷性”이라 할 수

57) 上掲書, p. 105.

58) 金聖順, 前掲書, p. 109.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負擔의 重荷性”을 男性老人의 視角에서는 金聖順의 말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노인들은 “困辱期”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핵가족에 있어서는 ① 脫親期의 다음에 ② 職業에서의 引退期가 오며, ①과 ②의 기간은 10년 내지 15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③ 脫親기간 즉 막내가 독립한 후부터 父母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은 男女 평균 16년이라고 한다.⁵⁹⁾

우리의 경우에도 核家族化, 産兒制限에 의한 斷産期의 短縮化에 따른 脫親期의 早期化 그리고 高齡化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미국의 가족주기의 모형과 비슷하게 접근하여 갈 것이다.

2) 女性老人

家族週期上 女性老人의 경우는 男性老人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 女性老人은 ① 40대 후반에 첫 孫을 보고, ② 60대 초반에 막내아이를 결혼시키며, ③ 60 초반에 남편과 사별한다.⁶⁰⁾

女性老人은 <表XVI>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平均 50歲도 채 되지 못해서 配偶者의 死亡을 經驗하게 된다. 이 점이 男性老人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런 결과는 男性老人이 未婚子女을 갖는 蓋然性보다도 女性老人이 갖는 蓋然性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子女를 出嫁時까지 扶養해야 할 負擔을 안게 된다. 우리는 配偶者가 死亡한 상태에서 子女를 키우며, 또 出嫁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할 때, 특히 홀어머니로서 經濟·社會的 經驗을 갖지 못한 時代에서 子女를 키우며 結婚을 시켜야 하는 할머니들의 勞苦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을 것 같다.⁶¹⁾

한편, 女性老人은 配偶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가족내의 位相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女性老人은 새로운 姑婦關係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配偶者 死亡이전의 高부관계와 판이하게 다른 高부관계가 생성되어 가는 것이다. 사실, 高부관계란 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랄 수 있을 것이다.

3) 샌드위치 세대(The Sandwich Generation)

퇴직연령에 직면한 사람은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하게 된다. 그들은 55세로부터 65세(아내는 몇년 더 젊음)가 되고 25세와 45세 사이의 子女를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부모를 갖게 된다. 그러니, 그들이 增大된 餘暇와 退職을 향락할 기회를 期待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기치 않았던 책임과 그들의 부모와 자녀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當面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퇴직연령에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老化, 새로운 役割에 대한 조정, 低下되는 所得과 질병과 환과에 직면하게 된다.

59) 上揭書, p. 109.

60) 上揭書, p. 109.

61) 林鍾權 外 4人, 前揭書, p. 105.

미국의 경우, 샌드위치 세대는 고령의 양친을 갖게 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高齡의 兩親을 갖는 退職者數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현상은 高齡의 양친은 자녀들과 보다더 感情的인 친밀감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들은 고령의 양친을 課業(tasks)으로 부조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에 老人의 孤獨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으며 그것이 女性老人의 경우, 그 量과 質에 있어서 더더욱 심각한 것이다.⁶²⁾

위에서 말한 것은 미국의 경우이거나 우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高齡의 양친을 가지면서도 子女는 別居하고 있는 老人世帶가 늘어나게 되어갈 것이다.

V. 老人慾求로 본 家族

여기서는 老人의 生活上의 基本的 慾求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經濟的 安定慾求, ② 身體的 健康慾求, ③ 情緒的 安定慾求, 그리고 ④ 自己實現慾求가 그것들이다. 다음에 이들을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經濟的 安定慾求

經濟的 安定慾求란 生活의 物的 側面에 있어서 充足 安定을 希求하는 것이며, 生活慾求중 가장 基底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욕구를 家族이라는 視角에서는 經濟的 援助라고 할 수 있다.

老父母에 대한 家族의 經濟的 援助의 一般의 性格에 따르면 老父母와 同居하든지 또는 別居하고 있어도 可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援助關係의 實態를 살펴보면 同居나 別居냐에 따라서 老父母에 대한 經濟的 援助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父母의 居住形態와 子女와의 援助關係는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子女와 同居하며 生活費의 大部分을 援助받는 사람을, ① 同居-依存型, 同居하면서 老人世帶가 大部分의 生活費를 마련하는 사람을, ② 同居-自立型, 子女가 別居하고, 子女로부터 大部分의 生活費를 援助받는 사람을, ③ 別居-依存型. 또한 子女와 別居하면서, 經濟的 援助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는 援助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援助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까닭에 이들을 兩分하여 前者를 ④ 別居-自立型, 後者

62) 韓昌榮, 前掲書, pp. 141-142.

63) 木村 汎/高橋重宏, 「家族の福祉と未來」, 東京: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第二刷), p. 145.

를 ⑤ 別居 - 不安定型이라 할 수 있다. 이 ⑤의 類型을 달리 표현하면, "棄老型" 이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類型論에 따라서 木村 汎/高橋重宏은 社會經濟階層이라는 視角에서 各類型을 分析하고 있거니와⁶⁴⁾, 여기서는 위 類型論과 관련된 調査와 研究에 따라서 고찰하기로 한다.

金鍾淑의 연구에 의하면⁶⁵⁾ 同居型은 全體 應答者 519명중 387명으로 74.6% 이며, 別居型은 132명으로 25.4%를 차지함으로써 同居型이 別居型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家族形態를 세분하여 본 結果(〈表XⅦ〉) 同居型중 長男과 同居하는 型이 300명(57.8%)으로써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長男 以外 既婚 아들과 同居하는 型은 70명(13.5%), 結婚한 딸 家族과 同居하는 型은 17명(3.3%)으로 나타났다.

또한 既婚子女와 別居하는 型으로는 未婚子女하고만 함께 살고 있는 型이 36명(6.9%)이며 配偶者하고만 사는 老夫婦型은 81명(15.6%), 그리고 老人 혼자 사는 型이 15명(2.9%)으로 나타났다.

〈表 X Ⅶ〉 應答者의 家族形態別 分布

家 族 形 態	비 분 율(명)
同 居 型	74.6
결혼한 장남가족과 함께 산다.	57.8
장남이외의 결혼한 아들가족과 함께 산다.	13.5
결혼한 딸가족과 함께 산다.	3.3
別 居 型	25.4
미혼자녀들과 함께 산다.	6.9
배우자하고만 산다.	15.6
혼자서 산다.	2.9
計	100.0(519)

한편 노후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결과(〈表 X IX〉), 한국에서는 「자립형」(40.3%)과 「가족 의존형」(49.4%)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자립형」(44.2%)과 「사회보장형」(47.1%)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⁶⁾

64) 上掲書, pp. 146-147.

65) 金鍾淑, "韓國老人의 生活滿足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6, pp. 80-81.

66) 朴武益, 「韓國老人의 生活과 意識構造」, 서울: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4, p. 37.

〈表 X IX〉 노후생활비에 대한 사고 방식

(%)

	한 국	일 본	태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끓었을 때 저축, 남에게 의지하면 안된다.	40.3	55.0	24.7	60.7	44.2	27.5
가족·자녀들이 대주어야 한다.	49.4	18.8	61.4	0.6	0.2	2.2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8.2	21.8	10.6	29.1	47.1	66.1

그리고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表 X X〉)의 중복응답 결과, 한국 및 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식들이 대준다」로 한국 78.2%, 태국 79.7%이다.⁶⁷⁾

〈表 X X〉 노후 생활비의 수입원(중복응답)

	한 국	일 본	태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공적 연금	1.7	64.6	4.1	82.1	87.7	74.9
사적 연금	—	8.4	0.4	27.1	35.5	49.3
저금을 찾아서	3.5	11.4	6.9	22.0	15.2	6.9
재산소득(배당금 이자 등)	5.5	15.6	8.3	45.1	13.1	11.9
일을 해서 번다	21.8	41.0	42.1	27.3	11.6	5.1
자식들이 대준다	78.2	29.8	79.7	2.4	1.7	3.3

위에서 소개된 조사와 연구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우리 나라에는 ① 同居 - 依存型이 많음을 알 수 있다.⁶⁸⁾ 그런데 앞으로는 ④ 別居 - 自立型으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棄老型이라 할 수 있는, ⑤ 別居 - 不安定型에 심각한 노인문제가 도사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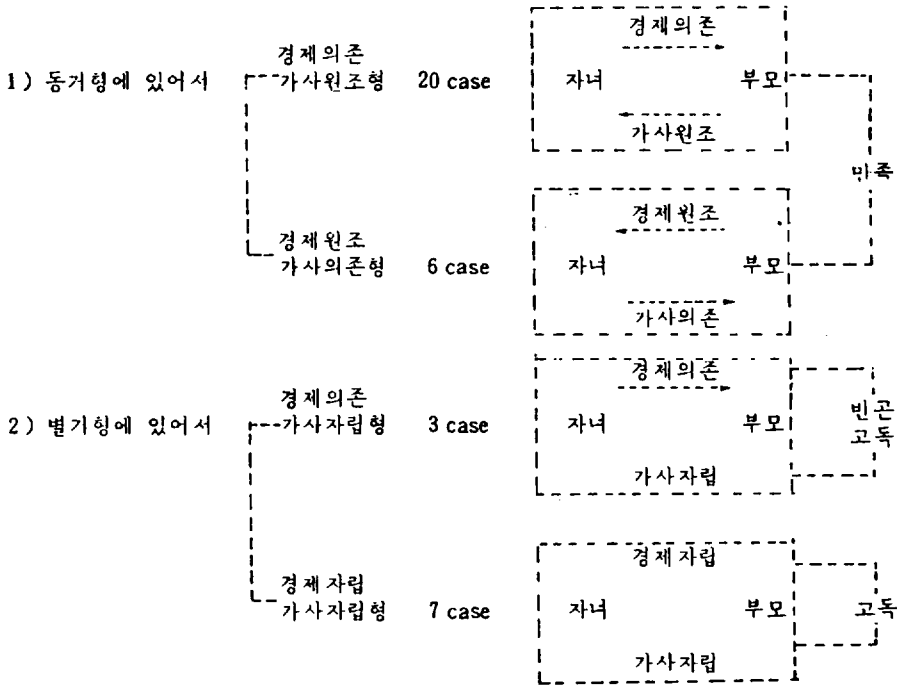
위에서는 居住形態와 經濟的 援助라는 두가지 次元을 기준으로 類型化시켜 본 것이지만, 그 두가지 次元에 더하여 이른바 “家事援助”라는 次元을 추가하여, 徐炳淑은 事例研究 結果를 다음과 같이 類型化시키고 있다(〈表 X X I〉)⁶⁹⁾.

67) 上掲書, p. 41.

68) 金弘植, “老人福祉의 個人的 次元에 관한 研究”, 「論文集」第11輯, 明知實業專門大學, 1987, p. 164.

69) 徐炳淑, “老後適應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大學院, 1988, pp. 84-85.

〈表XXI〉 사례연구결과 상호관계 유형



〈表XXI〉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노부모와 자녀들간에 경제적 의존과 원조, 가사적 의존과 원조가 상호의존형의 경우 만족을 느끼고 別居 특히 경제의존·가사자립형의 경우 가장 不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가정이 子女와 別居時 問題點이 크게 부각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老後適應에는 子女와 老父母間의 相互扶助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가정할 수가 있겠다.

요컨대 老後의 經濟的 自立을 巨視的으로 해결하는 제도로는 公的 年金制度, 老齡手當制度 등이 있는 것이다.

2. 身體的 健康慾求

身體的 健康慾求是 經濟的 安定慾求와 깊은 聯關性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經濟的 安定慾求로 還元할 수 없는 것이고, 經濟的 安定慾求와 함께 最終的으로는 生命의 維持와 얽혀있는 基本的 慾求인 것이다.

身外無物이라 했다. 즉, 財物을 잃으면 一部를 잃은 것이고, 名譽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全部를 잃어버린다고 했다. 이와 같이 건강은 所重한 것이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健康狀態가 衰弱해지는 반면에, 身體的 健康慾求是 增大된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영국에서는 「건강하다」가 가장 많고 태국, 프랑스에서는 「그리 건강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아픈데는 없다」가 가장 많다.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영국 69.4%, 미국 62.4%, 일본 56.6%, 프랑스 44.1%, 한국 37.6%, 태국 32.9%의 순이다(〈表XXII〉).⁷⁰⁾

〈表XXII〉 老人의 健康狀態

	한 국	일 본	태 국	미 국	영 국	프랑스
1. 건강하다.	37.6	56.6	32.9	62.4	69.4	44.1
2. 그리 건강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아픈데는 없다.	28.0	28.7	50.1	24.1	17.6	44.7
3. 가끔 아파서 자리에 누워야만 한다.	27.5	11.7	14.6	10.5	11.5	9.3
4. 아파서 하루중 대부분 누워 지낸다.	6.5	2.2	1.9	0.9	0.6	1.3
무 응 답	0.4	0.7	0.5	2.1	1.0	0.6

따라서 한국노인의 건강상태는 선진국의 노인건강상태보다 낮다. 이런 연유로 한국노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노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老人의 身體的 健康慾求를 두가지 側面 즉, 老人의 處地와 家族의 處地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老人의 處地

老人의 處地에서는 老人 스스로가 건강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金正根은 「罹病하지 않고 生活한다」는 것을 「身體 또는 精神的인 異常으로 日常生活活動에 支障을 가져오지 아니한 狀態」라고 定義하면서 健康을 生活概念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實際的으로 健康의 測定도 可能하다고 하면서 健康水準評價를 위한 一試案〈表XXIII〉을 소개하고 있다.⁷¹⁾

70) 朴武益, 前掲書, p. 58.

71) 金正根, "老人保健과 健康管理", 崔仁鉉 外 2人 편저, 「核家族化와 老年福祉」,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p. 162.

〈表 X X III〉 健康水準評價를 위한 一試案

1. 그 地域社會의 醫學, 醫療에서 特別한 異常이 認定되지 않는다. 心理的으로도 그 家庭, 職場 혹은 居住地에 있어서의 生活集團에서도 特別한 問題가 없고 항상 變함이 없는 生活活動을 할 수 있다.
2. 該當地域社會의 醫學, 醫療에 의해서 潛在的인 異常이 認定된다. 고 家庭, 職場 혹은 生活活動에서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은 있으나 항상 變함이 없는 生活活動을 할 수 있다.
3. 身體的, 精神的 또는 社會的으로 어떤 問題가 있으나 平常時와 變함이 없는 生活活動을 할 수 있다.
4. 身體的, 精神的 또는 社會的으로 生活活動이 制限된다.
5. 身體的, 精神的 또는 社會的으로 生活活動을 할 수가 없다.

資料: 鈴木(1982).

〈表 X X III〉에 의하여, 老人은 스스로 자기의 健康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老人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體質이나 生理에 알맞는 健康法 또는 健康에 관한 秘法(Knowhow)을 지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健康法은 술하게 山積해 있거니와 그런 健康법을 모두 活用할 수는 없다. 남에게 유익한 健康법이 반드시 자기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에게 알맞는 健康법을 한두가지 골라서 生活化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一日三回三分 飲水法이 있는데 필자의 경험상 健康에 좋은 것 같다.

나. 家族의 處地

長病에 孝子없다라는 말이 있다. 가족 구성원중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있으면 그 노인을 돌봐드려야 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수혜노인과 비수혜노인에 있어서 간호자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이 기대되는 사람은 자녀로 나타났고 그외에는 배우자, 친척, 친구, 이웃, 가정봉사원 등이지만 가정봉사원이 간호자로 기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表 X X IV).⁷²⁾

〈表 X X IV〉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봐주는 데, 자녀(41.7%), 배우자(18.7%), 친척(1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병간호를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家族의 老齡化現象으로 인하여 初老人 子女가 高齡인 父母의 병을 간호하게 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 병간호문제는 社會化되어야 한다는 要求(need)가 提高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72) 韓國老人福祉會, 「老人福祉研究」, 서울: 弘益齋, 1990, pp. 227-228.

〈表 X X IV〉 조사대상자의 질병시 간호자

간호자	수혜구분	수혜노인 (%)	비수혜노인 (%)	전체 (%)
배우자		3(7.3)	14(28.0)	17(18.7)
자녀		17(41.5)	21(42.0)	38(41.7)
손자녀		4(9.8)	3(6.0)	7(7.7)
친척		5(12.2)	8(16.0)	13(14.3)
친구		6(14.6)	1(2.0)	7(7.7)
이웃		4(9.8)	3(6.0)	7(7.7)
가정봉사원		2(4.9)	-	2(2.2)
계		41(100.0)	50(100.0)	91(100.0)

3. 情緒的 安定慾求

情緒的 安定慾求是 주로 身邊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感情을 表出하기도 하며 反應하기도 하면서 承認되고 受容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릇 家族關係는 本來的으로 情緒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老人에 대한 情緒的 援助는 그것이 家族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데 重要的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실, 情緒的 援助를 단순히 接觸頻도가 아니라, 接觸方法, 關係樣態 등으로 본다면, 同居가 반드시 親密性을 낳게 하고, 別居가 孤立性을 낳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同居의 경우에도 情緒的 親密性이 없고, 情緒的 對立性이나 依存性을 낳게 하는 危險性이 있으며, 別居의 경우에도, 情緒的 孤立性이 없고, 別居 子女로부터 情緒的 自立性이나 情緒的 親密化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居住形態의 一般的 聯關性으로부터 老父母와 子女의 情緒的 關係를 類型化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⁷³⁾

△ 同居의 경우 :

- ① 情緒的 親密型
- ② 情緒的 對立型
- ③ 情緒的 依存型

73) 木村 汎/高橋重宏, 前掲書, pp.148-149.

△ 別居의 경우 :

④ 情緒的 自立型

⑤ 情緒的 孤立型

위에서 다섯가지로 類型化되었거니와 老父母와 子女가 同居하는 경우, ② 情緒的 對立型과 ③ 情緒的 依存型은 이른바 姑婦間的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실 姑婦間的 關係에 있어서 日常的 接觸의 密着性에 하나의 갈등요인이 있다는 점을 想到할 때, 그 密着性을 昇華시키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方案으로 이른바 「修正直系家族」이 云論되어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른바 「박거리模型」이라는 paradigm이 傳來하여 왔다. 이 「박거리模型」에 관하여서는 후술한다.

여기서는 姑婦間的 갈등해소를 위한 方案으로서, 유영주의 方案을 소개한다.⁷⁴⁾

- ① 아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 ② 결혼전에 남편될 사람의 가족과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
- ③ 부모의 자녀세대에 대한 독립된 생활보장으로서 이것은 분가나 경제적 독립 등과 같은 외면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두 세대 간의 감정적·사적인 여러 심층적 측면에서의 상호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 ④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 ⑤ 동일 종교로서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며느리도 믿기를 원하는데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⑥ 가사나 생활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을 갖추어 시어머니의 사소한 책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조부모와 손자관계가 화목해야 한다. 또한 김태현·한희선은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 참여로 세대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강조한다.⁷⁵⁾

이 외에도 고부간의 중간위치에 있는 男便은 고부관계의 적절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姑婦間的 관계는 수수께끼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自己實現慾求

自己實現慾求란 자기의 行爲에 의하여 또는 存在함에 의하여 다소간에 有意的인 社會的地位나 役割을 얻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는 一般化 내지 客觀化

74) 金良喜, 前掲書, pp. 220-222에서 再引用.

75) 金태현·한희선,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No. 10, 韓國老年學會, 1990, p. 101.

하기 어려운 것이며, 어디까지나 個別化 내지 主觀化시킬 때 그 接近이 可能할 것이다.

무릇 老益壯하는 노인은, 自己實現慾求를 具體化하는데, 다른 노인들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老益壯하는 노인은 드물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꾸준히 左顧右盼함이 없이 이른바 “외국人生”으로 살아온 老人들은 老後에 自己實現慾求를 充足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평생 돌하르방을 조각하고 있는 張公益翁이 있는데, 張翁의 別名이 “돌하르방”이 되어 버렸다. 문자 그대로 張翁은 外國人生을 살아온 분이다. 여담같지만, 소련대 통령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예 왔었다(1991년 4월19-20일). 그때 제주도知事(洪瑛基지사)는 돌하르방을 張翁으로 하여금 제작케 하여 그 돌하르방을 「고르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張翁이 만든 돌하르방은 소련에 가 있다. 張翁도 보람을 느꼈으리라. 一生동안 돌하르방을 조각했던 보람을.

위에서, 네가지 生活慾求를 살펴봤거니와 그런 욕구들이 分散的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複合的으로 發現한다. 예컨대, 일을 하고 싶은 경우, 그것이 收入을 얻고자(經濟的 安定慾求)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적당히 活動하고자(身體的 健康慾求)할 때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하여 자기가 社會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確信을 얻고자(自己實現慾求)할 때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일벗과의 親密한 交流를 바라고자(情緒的 安定慾求)할 때도 있는 것이다.

VI. 老人과 住居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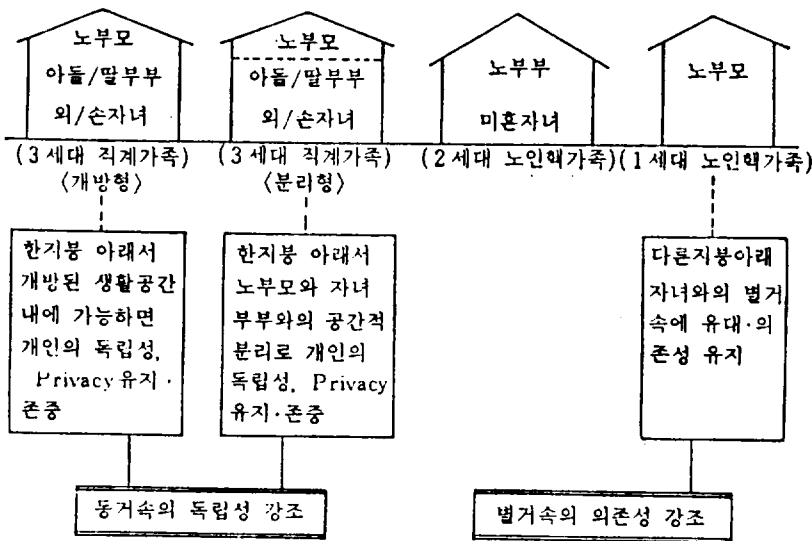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IV. “家族週기로 본 老人”에서는 時間的 次元에서 老人을 投影照明해 봤거니와, 여기서 다뤄지는 “老人과 住居形態”는 空間的 次元에서 老人과 관련된 家族關係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大家族, 修正直系家族, 核家族은 물론, 同居나 別居나의 문제를 천착하는 것이 문제를 接近하는 先行條件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제의 接近을 單純化시키기 위하여 먼저 未來老人家族의 構造的 模型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박거리 模型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러나 老人住居는 老人의 家族構成, 健康상태, 경제적 조건, 障礙與否 등을 考慮하여 老人世帶住宅(獨居·夫婦用), 3代 家族型 주택, 共同體 노인주택, 障礙老人用 住宅, 老人自活村, 養老施設, 노인요양시설 등의 여러 模型을 上程할 수 있는 것이다.⁷⁶⁾

76) 許炳琪, “老人住居環境計劃을 爲한 基礎的 研究”, 「論文集」 第23號, 建國大學校大學院, 1991, pp. 373-374.

1. 未來老人家族의 構造的 模型

전통가족과 현대가족과의 관련속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여러 가족관계 요인들을 고려하면 <表X X V>와 같은 네 가지가 노인가족의 主流的인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본다.⁷⁷⁾

<表X X V> 미래노인가족의 구조적 모형



<表X X V>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네 가지 模型이 있으나, 여기서는 3세대 직계가족의 분리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張仁協·崔聖載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3세대 직계가족의 분리형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아래/윗층의 구조, 또는 입구는 같으면서 벽으로 분리된 형의 주거시설에 노부부세대와 자녀세대가 생활하는 구조적 형태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국의 3대 가족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모형은 전통적인 3대 가족동거모형에다 현대적인 변화요소를 절충한 것으로서 핵가족기능의 장점과 노인세대가족기능의 장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모형을 具體化한 예로는 서울特別市, 상계지구 3세대 가족형시범아파트중의 “인거형”이 있으며 그 “인거형”의 만족도가 노부부(97%), 자녀부부(86%)로 나타나고 있다.⁷⁸⁾

한편, 金泳謨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과 자녀의 同居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分家를 지지하는

77) 張仁協·崔聖載, 前掲書, pp. 206-208.

78) 조선일보, 1990. 9. 17. <11>: 老부부-子女부부 83% 이상 “만족”.

사람의 약 4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⁹⁾ 그러나, 同居를 하다보면, 그로 인한 家族關係는 매우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空間的 構造上으로는 同居의 모습을 취하지마는, 家族構成員間的 “間”을 調律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런 모형이 自生的으로 發生한 곳이 제주도인 것이다. 제주도에에는 이른바 「박거리模型」이 있어왔다. 다음에 이 「박거리模型」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박거리模型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거리模型」은 家族構成員間的 “間”을 調律하는 모형이랄 수 있다. 그 “間”은 不遠不近의 原則이 적용된다. 즉, 너무 멀지(至遠)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至遠)도 않는 관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박거리모형의 기능이라고 본다.

여기서 박거리모형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⁸⁰⁾

가. 박거리模型의 構造

필자는 1977년에 제주도 북제주군 하가리의 옛가옥을 조사하였는데 그곳에는 제주도에에서 가장 오래된 집들이 原型으로 溫存되어 있었다. 오경호氏의 가옥구조는 <表XXVI>과 같다. <表XXVI>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옛날 가옥구조는 特異했다. 안거리가 있고 박거리가 있었으며, 안거리에서나 박거리에서 각각 獨立生活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家族의 民主化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였다.

나. 박거리模型의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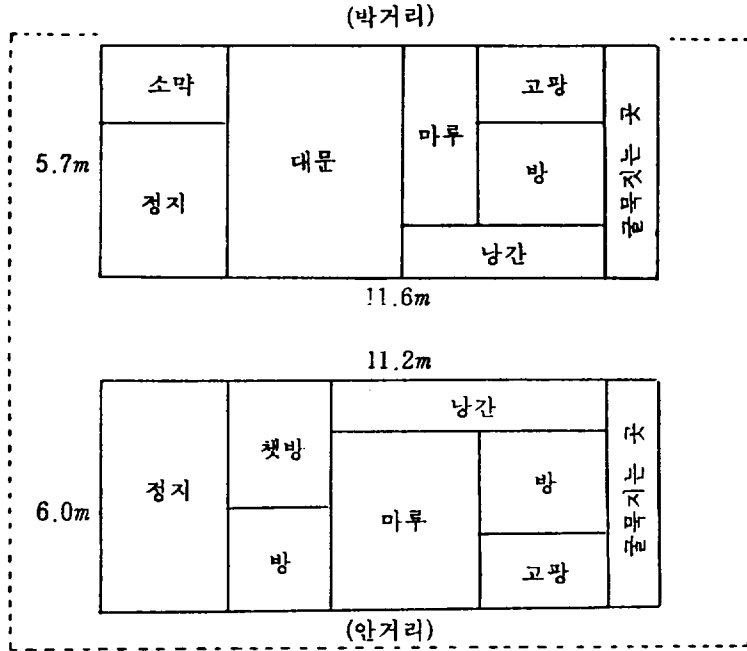
外國에서는 修正擴大家族(modified extended family)이니 또는 修正直系家族(modified stem family)이니 하여 理論構成에 腐心하고 있지만, 제주도 先祖들의 영특한 創意力과 삶의 슬기는 오랜 옛날부터 이른바 <박거리모형>을 創案해내어 生活化하여 오늘날에도 그 脈絡이 이어져 있음을 볼 때, 제주도 노인의 住居形態야말로 오늘날의 老人問題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實相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견해가 있다.

제주도의 家族慣習을 보면 父子 두 世帶의 家族이 한 울타리 안의 두채의 집에 각각 따로 산다. 부엌을 달리하여 食事を 따로 하고, 耕地를 따로 하여 經濟를 따로 하고, 자갈한 家計도 물론 따로 한다. 外部 사람이 보는데는 한 家族처럼 보이고, 울타리 안의 建物, 난가리, 변소, 家畜, 땀감 등이 모두 共同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 아들의 것과 아버지의

79) 金泳謨, 「韓國家族政策研究」, 서울: 韓國福祉政策研究所出版部, 1990, p. 50.

80) 韓昌榮, 「濟州島의 天壽論」,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p. 54-61.

〈表 X X VI〉 오경호氏 家屋



〈해설〉

정지 : - 정재 : 부엌

고팡 = 계팡 = 안방 = 안광 = 안방 : 광

챗방 : 마루방과 부엌세에 있는 작은 마루

글목 : 방고래와 아궁이

※ 이 해설은 박용후 지음 「제주방언연구」(1960) pp.34~38. 참조.

것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꿰주고 받고 하는 거래가 明確히 計算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俗談에 「父子間에도 범벅에 금을 굶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즉, 한 울타리를 표준으로 할 때, 그 안에는 三世代家族이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形態적으로는 直系家族이지만 機能的 내지 規範적으로는 分離된 두 개의 실질적인 核家族을 單位로 하는 一種의 親族 system이라 할 수 있으며 民主化된 가족형태랄 수 있다. 그렇다고 核家族制度에서 발생하는 缺點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核家族化에서 오는 孤獨이란 <박거리모형>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外國에서는 子女와의 交流頻度を 關心의 對象으로 삼고 있지만, <박거리모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녀를 만날 수 있기 까닭이다. 이런 實相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견해도 있다.

자식이 결혼하여 별거하게 되면 더욱 그러려니와 큰 아들의 경우 별거를 앉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해도 부모와 자식과는 식생활을 구분해서 한다. 이 경우 부모가 늙어지어 집안의 모든 권리가 자식에게 넘어가면 집의 형편에 따라 "작은 방" 또는 "작은 채"로 삶을 옮기게 된다. 이런 경우의 노부모의 생활처는 주로 "모커리"라 불리우는 별채가 된다.

이렇게 가정의 주체, 세대주에서 벗어난 노부모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하기까지는 자기대로 의식을 감당하여 가며 살아간다.

노부모는 노부모대로 젊은 자식은 젊은 자식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남의 힘에 기대고 살지 않으려는 제주도민 특유의 독립정신이 부자지간(父子之間)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이라고도 하겠으나 일방 노부모와 젊은 자식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삶으로써 내적 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간절함을 느껴게 된다.

그리고 核家族形態를 취하는 제주도에서는 필연적으로 老夫婦만의 가족이나, 여자 혼자서 사는 가구가 많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老人이 <안거리>에 살다가 자식들이 成長하면 차례 차례 別居시킨다. 그리하여 末子를 결혼시키고 老後가 되면, 대개 <안거리>는 자식에게 넘겨주고 <박거리>로 옮겨 산다. 여기서 老夫婦의 獨立生活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거리>로 옮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당을 건너가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기능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外部上으로는 代表性이 轉倒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박거리모형>에 의한 제주도노인의 住居形態의 具體的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死別 또는 親知의 상실로 對人關係가 孤獨하게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노인은 한 울타리 안에 住居하므로 孤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제주도노인은 經濟적으로 自立하려는 意志가 強하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정지(부엌)와 고팡(庫房)을 따로 한다. 즉, 이와 같은 모습은 家庭經濟의 民主化現象이랄 수 있을 것이다.

③ 家庭에 있어서 <박거리> 또는 <모커리>로 옮긴다 해서, 老人의 地位가 低下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老人이 <안거리>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獨立性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④ 子女의 家族이 營爲하는 日常生活을 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老人은 無聊함이 없어진다.

⑤ 손자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된다. 老人이 體得한 풍부한 生活經驗은 손자들에게 不知不識間에 傳承되어 청소년선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의 視角에서는 敬老·敬祖思

想을 함양하는 場을 <박거리모형> 또는 <모커리모형>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⑥ <박거리모형>이나 <모커리모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눈치보기를 止揚(aufheben)한다. 따라서 서로 便安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노인들은 아늑한 분위기(제주도 방언: 오시룩한: 영어 cozy, comfortable)를 좋아한다. <박거리모형>이나 <모커리모형>은 바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형인 것이다. 노인에게 성가신 일은 禁物인 것이다. 그런데 <박거리모형>이나 <모커리모형>은 그와 같은 "성가심"을 雲散霧消格으로 없애버리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⑦ 姑婦間的 갈등을 예방해 준다. 모르면 약이라고 했던가. 서로 獨立生活을 營爲하기 때문에 內面的·精神的 世界에도 독립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을 最少化시키는 役割을 <박거리모형>이나 <모커리모형>이 하게 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E. M. Dural이 美國 家庭에 3대가 같이 同居하는 경우에 있어서, 調和로운 家庭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方法을 提示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經濟的인 面과 다른 面에서 責任感을 분명히 한다.
- ② 서로 다른 사람들의 期待에 合理的으로 對處한다.
- ③ 家族構成員, 個個人的 私有物의 보호를 위한 規定마련.
- ④ 個個人的 privacy를 존중.
- ⑤ 各個人的 才能이나 關心을 북돋아 준다.
- ⑥ 家庭活動에 있어서 公平한 行爲를 부담한다.
- ⑦ 意見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他人의 意見을 敬聽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
- ⑧ 家族들이 좀더 자주 모여서 함께 지냄으로써 다른 가족들과의 단결모색 등.

이와 같이, 美國에서도 老齡에 있어서 家族의 安樂이 특히 重要視되며 가정은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이는 家族員의 役割期待에 대한 발전적인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Dural의 方案提示는 바로 <박거리모형>이나 <모커리모형>에서 그 眞價를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거리모형>은 世界的 老人問題를 해결하는 데 出品해도 손색이 없는 모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박거리모형>을 現代化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박거리모형>이 平面的이라고 한다면, 現代建築에 적합한 垂直的 <박거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平面的 <박거리모형>을 再構成하여 아파트의 일정한 空間(一家族의 空間)을 兩分하고 <안거리>와 <박거리>의 모형을 再現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家族構成員間的 空間的 距離關係上, 박거리模型은 不遠不近의 原則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姑婦間的 관계에 있어서는 不遠不近의 原則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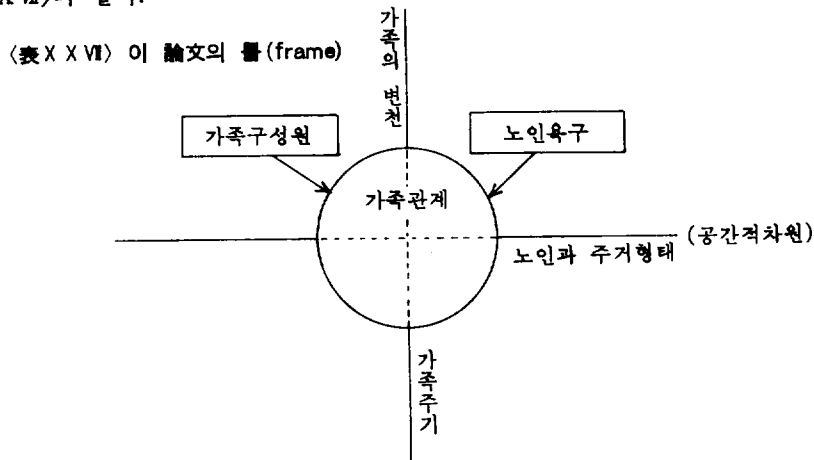
VII. 結 論

老人의 老齡化(Aging) 과정과 家族福祉의 關係를 淸查해 왔거니와, 이 論文 II에서는, 주로 韓國家族의 變遷樣相을 살피었다. 즉, 家族의 形成이 변하고, 가족의 構造가 변하며, 가족의 機能이 변하는 한편, 老人家口가 증가하는 傾向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論文 III에서는, 立體的 構造面과 平面的 關係面으로 나누어, 家族關係로 본 老人의 位相을 고찰하여 왔다. 이 論文의 III이 超時間的 次元에서 다뤄진 한편, IV에서는 時系線上的 家族週기로 본 老人의 자리매김을 다뤄본 것이다.

이 論文 V에서는, 老人慾求라는 觀點에서 家族을 投影照明하여 왔으며, 이 論文 VI에서는 老人과 住居形態를 고찰함으로써, 老人과 家族間의 生活空間的 次元의 모형을 究明해 왔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 살피본 내용을 한 가지 틀(frame)로 圖式化시켜 보면, <表 XXVII>과 같다.



<表 XXVII>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論文은 각 차원의 문제를 單一次元的, 平面的, 一次方程式的 接近을 試圖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여러 次元을 統合하는, 多次元的, 立體的, 高次方程式的 接近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論文은 後者와 같은 次元 높은 接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다행으로 본다.

이 論文은 가족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接近하였기 까닭에, 老人과 親舊關係는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성을 띠는 것은 親舊關係가 老年의 중요한 두 사람간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人爲的 親族關係가 앞으로는 老人들간에도 盛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⁸¹⁾

81) 崔信德·金鍾淑 編譯, 「老人과 社會」, 서울: 考試研究社, 1983, p. 216.

이런 문제에 대한 전착은 紙面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論文 V에서는 老人慾求라는 視角만을 다뤘지만, 家族福祉를 위해서는 老人의 役割(role)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에서 하여야 할 老人의 役割에 대해서, 白昌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⁸²⁾

① 가족구성원간에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일이다. 家族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역시 집안의 웃어른인 老人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② 자녀들이나 손자녀 또는 이웃의 젊은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혹시 무의식중에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를 감싸주는 아량도 베풀줄 알아야 한다.

③ 관혼상제에 관한 일을 주관하거나 선조 어른들의 묘소관리를 하거나, 족보의 정리 또는 宗親會와 관련되는 일 등은 老人들이 주관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속한다.

④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老人들은 건강이 허락한 한 家事일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되어진 老人의 役割은 중요한 역할의 例示라고 볼 수 있거니와, 老人의 役割은 老人의 慾求와 函數關係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想到할 때, 老人의 役割도 현대 사회과학이 개발한 바 있는 役割理論(role theory)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요컨대, 이 論文은 가족구성원을 토대로 하여 微視的인 接近方法으로 다뤄진 것이다. 그러나 老年과 家族福祉에 관한 문제를 巨視的인 接近方法으로도 다뤄야 한다. 이 후자의 방법은 이 論文 以外の 일이거나, 실질적인 家族福祉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老人이 잘 살아야 하고 그 老人이 속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잘 살아야 한다. 巨視的인 接近方法上, 현재 老人을 표준으로 할 때 1991년부터 70세이상 영세계층노인에게 월 1만원씩의 老齡手當이 지급되어지고 있으며,⁸³⁾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2장의 승차권이 배포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가족을 표준으로 할 때, 부양가족 있는 부녀자세대주엔 年 48만원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원동 5개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결식노인지원(1인당 5백원)을 1991년부터 22개소로 늘린다.⁸⁴⁾

위에서 언급되어진 老齡手當은 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는 데에는 그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직은 鳥足之血에 不遇하다는 批判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老齡手當 支給對象의 擴大, 老齡手當額의 增額등이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家族福祉는 地域福祉와 無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地方自治는 30년동

82) 白昌鉉,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老人의 役割", 「老人과 地域社會(第2回 老人福祉세미나)」, 世宗文化會館: 서울特別市·韓國老年學會, 1991. 5. 24, p. 66.

83) 동아일보, 1990. 12. 30. <7>: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84) 조선일보, 1990. 12. 31. <5>: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안 中斷되었다가 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地方自治에 따른 地域福祉는 성장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지역복지는 活性化의 好機를 맞게 된 것이다. 지역복지를 老人에 投影照準하면 老人地域福祉가 되는 것이다.⁸⁵⁾ 이러한 老人地域福祉가 活性化되어가면, 그 結果는 家族福祉를 向上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地方化時代의 開幕에 즈음하여 地方政治, 地方行政, 地方經濟 등은 활발하게 擧論되면서도 地域福祉 地方福祉에 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擧論되어지는 強度가 낮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시, 地方自治가 住民의 福祉增進에 있다는 점을 想到할 때, 地域福祉 또는 地方福祉의 문제가 제1차적으로 擧論되어야 한다. 그래서 地域福祉가 발달하고 그 내포에 있는 老人地域福祉가 活性化되어, 그것이 家族福祉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期待한다.

85) 韓昌榮, “地方自治와 老人福祉에 관한 考察”, 「社會發展研究」第6輯,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1990. 8. p. 61.

〈Summary〉

A Study on Aging and Family Social Welfare

Han Chang-young

There are many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welfare of the aged and family social welfare. In order to study these functional relations, many aspects related to them should be dealt with as follows :

1. Response of the Family to Change
 - 1) Family formation
 - 2) Family structures
 - 3) Family functions
 - 4) The aged home
2. Orientation of the Aged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Relations
 - 1) Cubical structures
 - 2) Horizontal relations
3. The Aged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Cycle
 - 1) Change of family cycle
 - 2) The aged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cycle
4. Family from the Viewpoint of Needs of the Aged
 - 1) Need of economic stability
 - 2) Need of physical health
 - 3) Need of emotional stability
 - 4) Need of self-realization
5. The Aged and Dwelling Patterns
 - 1) Structural model of the aged family in the future
 - 2) Bakgeori model

In conclusion, firstly, the need of economic stability is of the most importance among any other needs.

Secondly, in the aspect of need of emotional stability, relation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re delicate and called a riddle, so that solution of conflicts originated from such relations should be sought with sincerity.

Thirdly, there are many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family social welfare and community welfare, so that community welfare should be developed from this year on, in order for family social welfare to be promoted.